

定慧社

불기 2555년 | 제41호



송광사 전통강원

법정스님의 의자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으라.
그 일에 전심전력을 기울이라.
그래서 당신의 인생을 환하게 꽃피우라.

- 법정스님 <오두막 편지> 중에서 -

아름다운 마무리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음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용서이고, 이해이고 자비이다.

- 법정스님 <아름다운 마무리> 중에서 -

행복은 결코 많고 큰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도 고마워하고 만족할 줄 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백과 공간의 아름다움은 단순함과 간소함에 있다.

- 법정스님 <홀로 사는 즐거움> 중에서 -

불일암 가는길

법정스님은 1932년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났다. 1956년 전남대학교 상과대학 3년을 수료 후 통영 미래사에서 효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1959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고, 해인사 대교과를 졸업하였다. 그 뒤 여러 선원에서 수선안거를 하였고, 1970년대 후반에는 불일암에서 홀로 살았다. 2003년 이후에는 강원도 산골로 거처를 옮겼으며 2010년 3월 11일 서울 길상사에서 78세(법랍 54세)로 입적하였다. 대표적인 수필집으로는 '무소유' '오두막 편지'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버리고 떠나기' '물소리 바람소리' '산방한담' '텃빈 충만' '스승을 찾아서' '서 있는 사람들' '인도기행' 등이 있다. 그 밖에 '깨달음의 거울' '숫타니파타' '불타 석가모니' '진리의 말씀(법구경)' '인연이야기' '신역 화엄경' 등의 역서를 출간하였다.

定慧社

불기 2555년 | 통권 제41호

- 2 사진 속 이야기
- 4 방장스님 법어
신묘년 하안거, 동안거 결제 법어 | 범일 보성
- 6 기획
적멸보궁을 찾아서 | 편집실
- 10 지대방 이야기
하안거
동안거
- 23 정혜탐방
동주 원명스님
- 31 한국불교 전통의례 전승원 2012년 모집요강
- 32 특별기고
참 좋은 인연 | 전남대 철학과 이중표 교수
- 35 경전 한 구절 1
마음은 화가
- 36 목우단상
하안거
동안거
- 48 경전 한 구절 2
한 구절의 계승을 아는 것이 일체를 아는 것
- 49 바람 소리 한자락
선지식 안경사 | 진웅
보살행菩薩行 | 경본
병원에서 화엄경의 요지를 설하다 | 일각
- 55 정혜사 후원안내
- 56 詩가 있는 풍경
명적, 행원, 여공, 송산, 범등
- 61 불교상식
오관계五觀偈의 의미
- 62 학인기고
공덕의 기원 | 시륜
가섭존자의 자비행 | 경본
『밀라레빠』를 읽고 | 자운
- 69 소년소녀 가장 돕기 후원 안내
- 70 신묘년 강원 소식
- 72 강원 후원내역·편집후기



‘강천사 구름다리’
봄 산철 강천산 원족산행 중
구름다리를 건너 산에서 내려오는 길.

발행처 | 송광사 강원
발행인 | 일귀(강주)
편집인 | 정목(입승)
편집장 | 혜연
편 집 | 시안
사 진 | 시륜

발행일 | 불기 2556년(서기 2012) 2월 1일
주 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전 화 | 061) 755-5302
인 쇄 | 부다기획 062) 225-8825



瀑布

迅瀑落危層 (신평락위층) 내닫는 폭포수 위태로운 층 떨어지고
冷聲聞遠壑 (냉성문환학) 차가운 물소리만 골짜기에 메아리치네.
纖纖一點塵 (섬섬일점진) 작고 작은 한 점 티끌도
無處可栖泊 (무처가서박) 머물러 깃들만한 곳이 없구나.



遊 山(유산) 산에서 노닐며

臨溪濯我足 (임계탁아족) 시내에 나아가 내 발을 씻고
 看山淸我目 (간산청아목) 산을 바라보며 내 눈을 맑히네.
 不夢閑榮辱 (불몽한영욕) 부질없는 영욕을 꿈꾸지 않거니
 此外更何求 (차외갱하구) 이 밖에 다시 무엇을 구하라.

진각혜심(眞覺慧諶 : 1178~1234)

조계산(曹溪山) 수선사(修禪社) 2세, 자호는 무의자(無衣子) 보조국사 지눌스님에게 출가, 1210년 보조스님 입적 후 수선사를 계승하였으며 각처의 사찰을 주유하면서 선법을 전하다가 1233년 월등사에서 입적. 현재 광원암에 부도가 남아 있다. 저술로 <선문염송(禪門拈頌)> · <조계진각국사어록(曹溪眞覺國師語錄)> · <무의자시집(無衣子詩集)> 등이 있다.

신묘년辛卯年

하안거 결제 법어法語

梵日 普成 범일 보성 |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이번에는 불탄절佛誕節 연등불사燃燈佛事가 끝나자 곧 여름 결제가 되니 우선 연등燃燈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始作해서 결제법문結制法門을 할까 합니다.



고인의 계송偈頌에

개개면전명월백箇箇面前明月白이요

인인각하청풍불人人脚下淸風拂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나 얼굴에는 해와 달이 밝게 비치고 발아래는 맑은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처님과 중생衆生이 똑같이 자성광명自性光明을 발發하고 있지만 업식業識에 가려져서 수용受用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衆生인 것입니다. 연등법회燃燈法會는 우리 각자各自가 지

니고 있는 자성광명自性光明을 찾아내서 부처님처럼 수용受用하자는 서원誓願을 세우는 의식儀式인데 요즘에 와서는 본원本願을 망각忘却하고 사원경제寺院經濟를 충당充當하는 수단手段으로 전락轉落해 가는 감感이 점점 짙어지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痛歎할 일입니다.

부처님 당시當時에도 부자富者들이 공양供養 올린 등燈들은 다 바람에 꺼졌는데 빈자일등貧者一燈만이 유일唯一하게 바람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신심信心이 부족不足한 화려華麗한 등燈보다는 지극至極한 신심信心으로 밝힌 작은 등燈의 공덕功德이 더 수승殊勝하다는 것입니다.

금년今年 삼하결제대중三夏結制大衆은 바른 신심信心으로 바른 공부工夫를 해서 불조佛祖의 본원本願에 어긋남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대혜어록大慧語錄에 당초장위모장단當初將謂茅長短터니 소요원래지불평燒了元來地不平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풀이 들쭉날쭉 났다고 해서 태워버리고 보니 땅이 본래 울퉁불퉁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공부工夫를 애써서 해도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공부工夫에 의심疑心이 나면 선지식善知識을 찾아가서 의심疑心을 풀고 가끔 조사어록祖師語錄을 살펴봐서 사견邪見이나 편견偏見에 빠지는 것을 미리 막아야 합니다.

야행夜行에 막답백莫踏白하라. 불수정시석不水定是石이니라.

밤에는 흰 것을 밟지 말라. 물에 빠지거나 돌부리에 채일까 합니다.

주장자(拄杖子)를 세 번 구르고 하좌(下座)하다. **定慧社**

신묘년辛卯年

동안거 결제 법어法語

梵日 普成 범일 보성 | 조계총림 송광사 방장

금년今年 삼동三冬 결제법문結制法門에는 아만我慢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공부工夫하는 이
가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아만我慢입니다. 고인古人의 말씀에 아만我慢을 가지고 공부工夫하면 쉼나무
를 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예배禮拜하는 것은 아만我慢을 조복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우지 않고 예
배禮拜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세近世 선지식善知識 보문普門스님은 누구든지 찾아와서 당신에게
절을 하고자 하면 부처님께 먼저 예배禮拜하고 오라고 하셨고 인욕忍辱으로 유명한 법주사法住寺 석상石
霜스님은 보은報恩 군수郡守가 만나러 왔는데 법당法堂에 안 가고 바로 오는 것을 보고 군수郡守 영감은
어째서 이 도량道場에 제일第一 어른이신 부처님께 예배禮拜하지 않고 오느냐고 크게 꾸짖으셨다고 합니다.

금년今年 겨울에 모인 결제대중結制大衆은 고인古人의 가르침에 따라 아만我慢으로부터 버리는 것으로
공부工夫의 기초를 삼기 바랍니다.

학도선회절만당學道先湏絕慢幢 하라. 착아수도도불성着我修道道不成 이니라.
영가증문육조갈永嘉曾聞六祖喝 하고 빙석아만득돈오氷釋我慢得頓悟 로다.

도를 배우고자 하거든 먼저 아만심을 끊어라. 아만심을 가지고 공부하면 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영가
는 육조스님의 꾸지람을 듣고 아만심이 얼음처럼 녹아버리자 그 자리에서 크게 깨쳤다고 합니다.

금일대중今日大衆은 조계산曹溪山의 뜬 달을 보았습니까?

보름달은 차고 이지러진 일이 없는데 중생衆生이 차별심差別心 때문에 초승달은 이지러져 보이고 보름
달은 둥글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늦어도 내년 해동解冬 때에는 이지러지고 차기 이전 달을 나에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주장자(拄杖子)를 세 번 구르고 하좌下座하다. 定慧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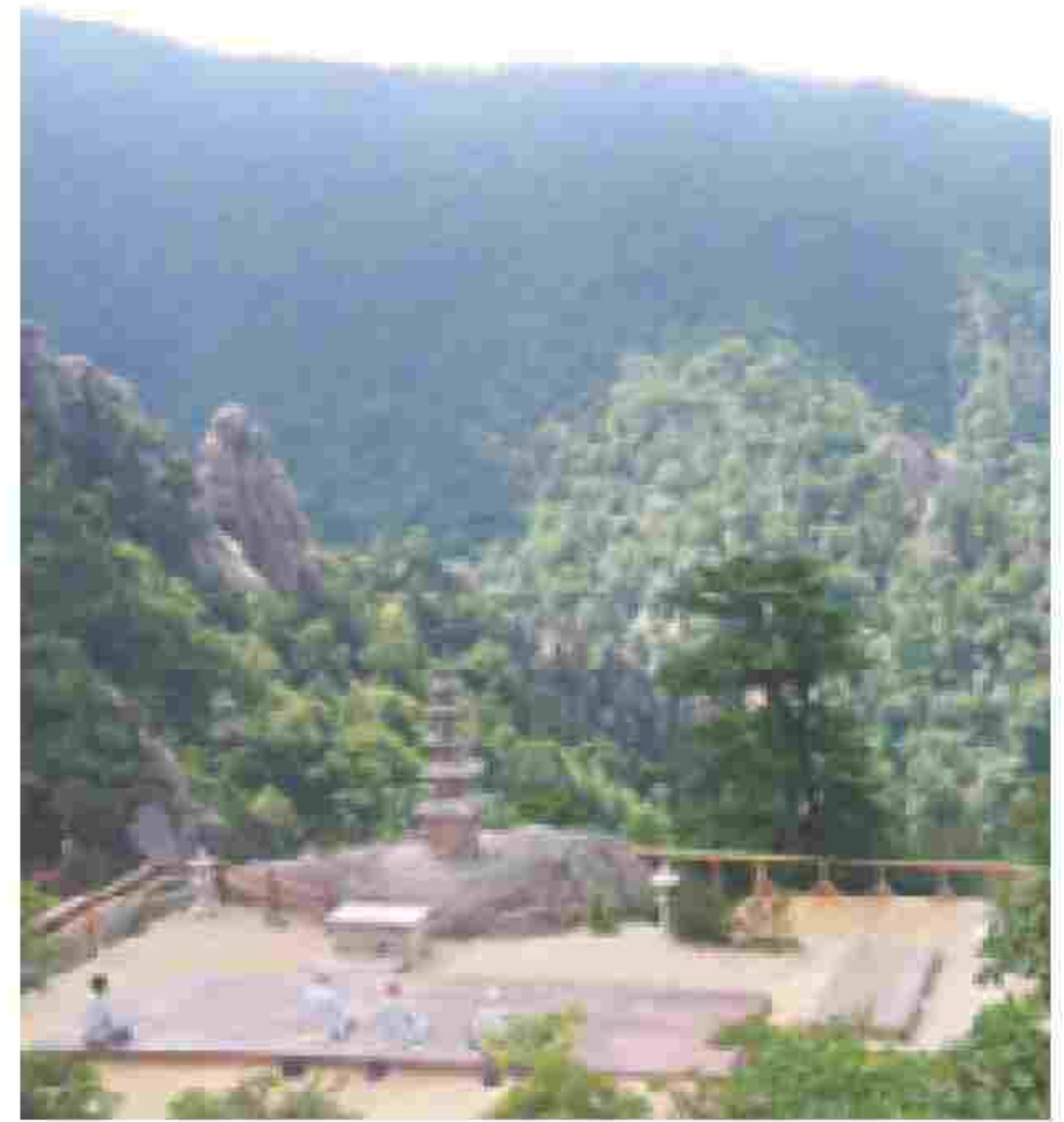
적멸보궁을 찾아서

편집실

봉정암

강원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 설악산 소청봉小靑峰에 있는 절.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인 백담사百潭寺의 부속암자이다. 대표적 불교 성지인 5대 적멸보궁五大寂滅寶宮 중의 하나로 불교신도들의 순례지로도 유명하다.

643년(선덕여왕 12)에 자장慈藏이 당나라에서 부처님의 진신사리眞身舍利를 가지고 귀국하여, 이곳에서 사리를 봉안하고 창건하였다. 그 뒤 677년(문무왕 17)에 원효元曉가, 1188년(명종 18)에 지눌知訥이 증건하였으며, 1518년(중종 13)에 환적幻寂이 증수하였다.



봉정암 석가사리탑

봉정암은 5대 보궁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보궁 참배하기가 제일 힘든 만큼 참배하는 공덕도 클 것 같다. 봉정암 가는 길은 여러 코스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길이 백담사를 통해 올라가는 길이다. 백담사 입구에서 내려서 마을버스 정류장까지 가면 버스가 있다. 백담사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다시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 되는데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약 3시간 정도 걸린다.

백담사에서 한 시간 정도 걸어가면 영시암이 나오고 조금 올라가면 봉정암과 오세암의 갈림길이 나온다. 오세암은 5세 동자가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입었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암자이다. 담이와 길손이 남매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스님의 손에 맡겨지게 된다. 어느 겨울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에 내려간 스님이 눈이 쌓여서 겨울 동안 암자로 돌아가지 못 하게 되었다. 봄이 되어 눈이 녹자 올라가 보니 길손이가 관세음 보살님의 보살핌으로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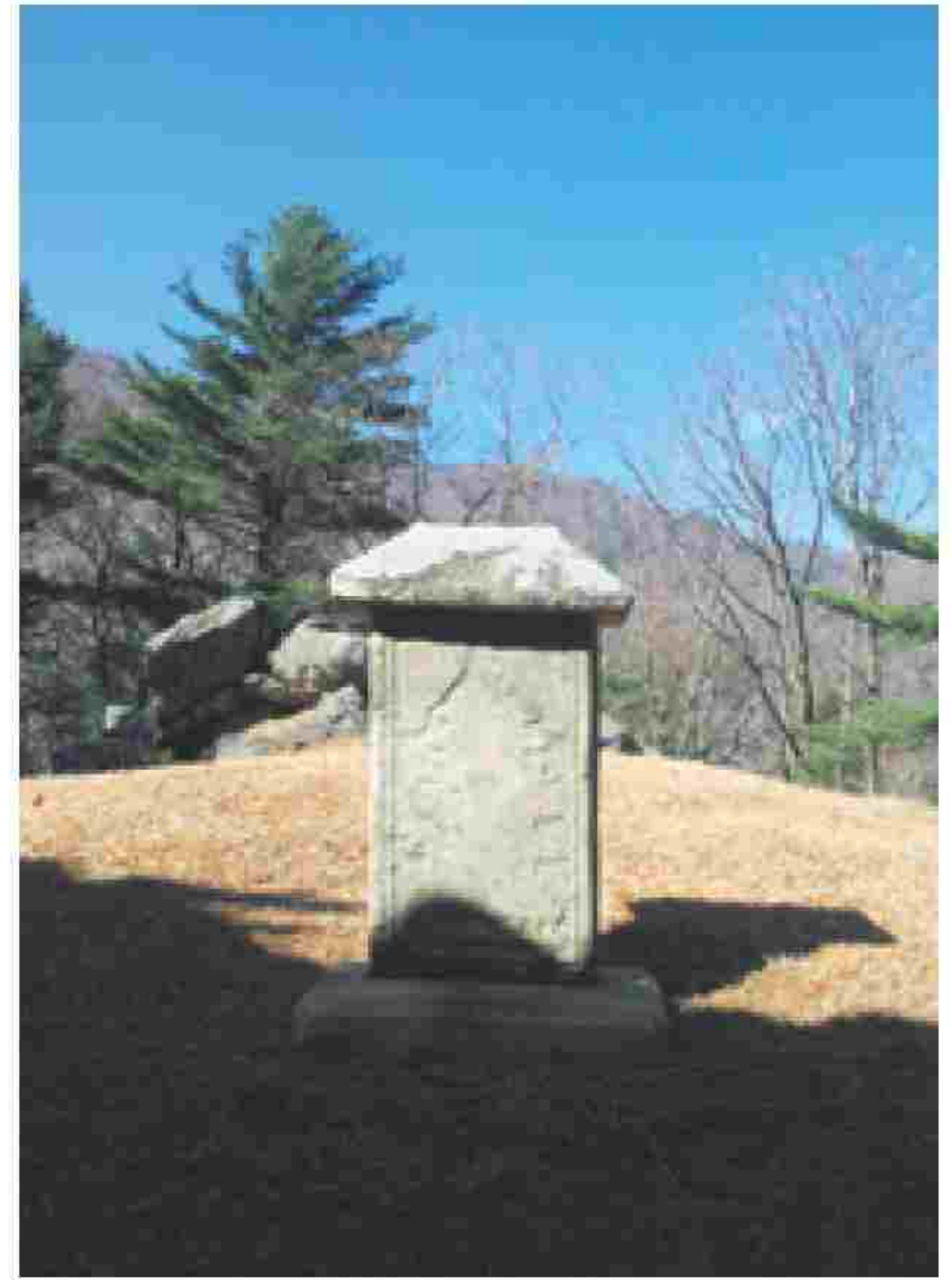
상원사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月精寺의 말사로, 월정사와는 이웃하고 있다. 원래의 절은 724년(신라 성덕왕 23) 신라의 대국통大國統이었고 통도사通度寺 등을 창건한 자장慈藏이 지었다고 한다. 지금은 종각鐘閣만 남고 건물은 8·15광복 후에 재건한 것이다. 현존 유물 중 가장 오래된 동종(국보 36)이 있다.

상원사 가는 길은 영동고속도로에서 진부IC로 나와 진부터미널에서 상원사 가는 버스를 타면 된다. 버스는 월정사까지 가는 것이 있고 상원사까지 가는 것이 있다.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의 거리는 약 10Km정도 된다. 상원사에서 약 3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면 적멸보궁이 나온다. 보궁 가는 길 중간쯤 사자암이 있어 이곳에 머물러 기도 할 수 있다.

상원사에도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 조선시대 세조 임금의 몸에 등창이 났는데 치료를 하여도 낫지 않았다. 어느 날 오대천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한 동자가 와서 등을 밀어 주며 누구에게도 임금의 등을 밀어 주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했더니 그 동자가 누구에게도 문수보살을 보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고는 사라졌다는 것이다. 그 후로 임금의 등창이 씻은 듯이 나아갔다는 전설이다.

오대산의 정상 비로봉은 3Km쯤 올라가면 나온다. 본사인 월정사에는 국보 제48호 팔각구층석탑이 있으며 그 탑 앞에는 보물 제139호 석조보살 좌상이 있다.



법흥사

사자산 법흥사는 신라의 고승 자장율사가 나라의 흥륭과 백성의 편안함을 도모하기 위해 643년 신라 선덕여왕 12년에 사자산 연화봉에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흥녕사興寧寺로 창건했다. 중국 선종의 증흥조인 마조도일 선사로부터 선禪을 전수받았던 신라의 선승 도윤칠감국사의 제자 징효절증澄曉折中이 886년 이곳에 선문을 여니 이것이 바로 라말여초 구산선문 중 하나였던 사자산문獅子山門이다.

강원도 영월군 수주면에 위치하고 있는 법흥사로 가는 버스는 영월과 제천에 있다. 이곳도 버스가 많지 않아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다. 영월에서 버스를 타면 구불구불한 길을 한참 달려 목적지인 법흥사에 도착하게 된다. 제천에서 가는 버스는 일찍 끊기기 때문에 오후에는 가지 못 한다. 법흥사는 다른 적멸보궁에 비해 템플스테이가 많이 열리는 것 같다. 보궁 가는 길은 일주문에서 10여 분 올라가면 되는데 중간 지점에 요사채가 있어 기도하려면 이곳에서 머무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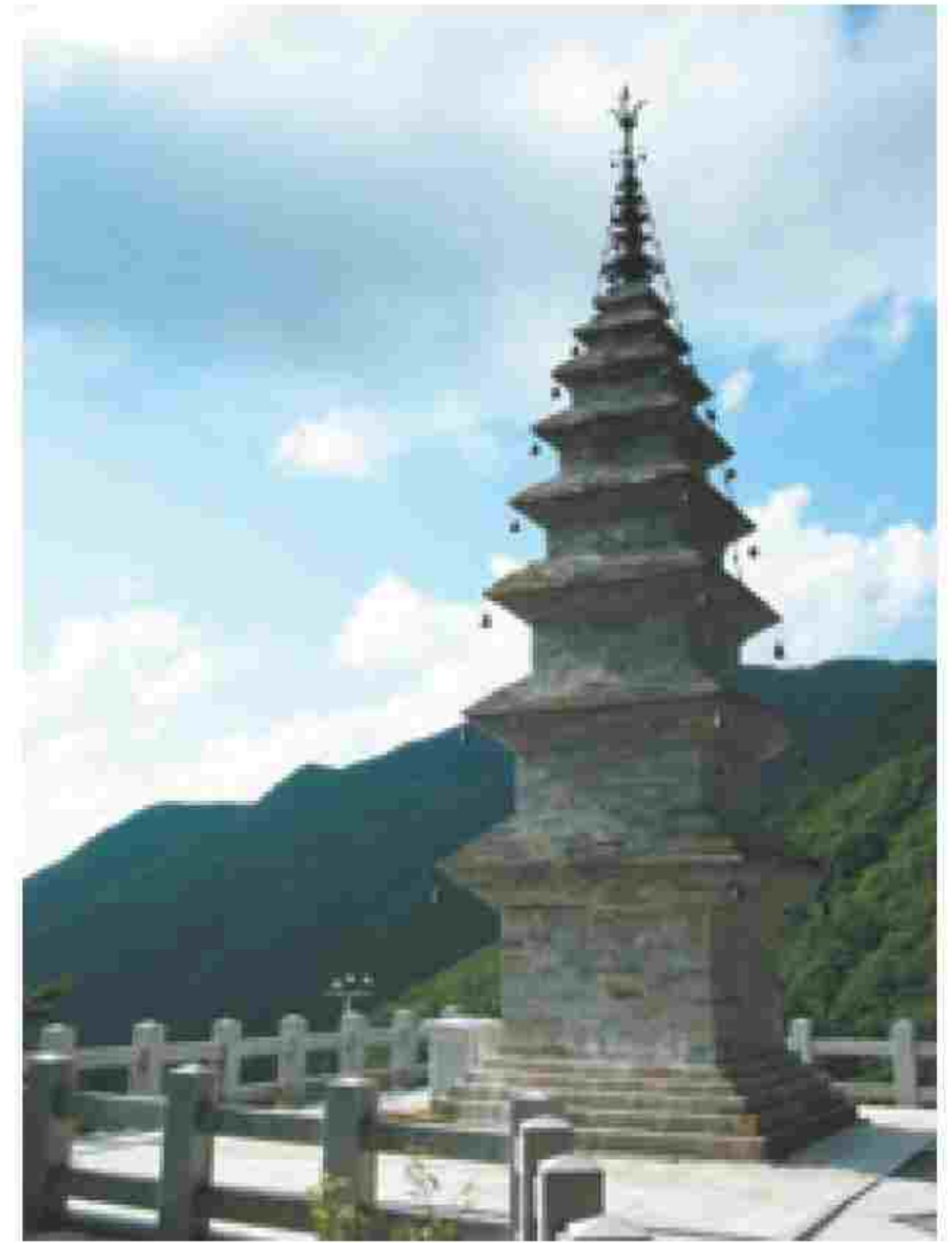


법흥사 적멸보궁

정암사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인 월정사月精寺의 말사이다. 자장慈藏이 636년(선덕여왕 5)에 당唐나라에 들어가 문수도량文殊道場인 산시성[山西省] 운제사雲際寺에서 21일 동안 치성을 올려 문수보살을 친견親見하고, 석가의 신보神寶를 얻어 귀국한 후 전국 각지 5곳에 이를 나누어 모셨는데, 그 중 한 곳이 이 절이었다고 한다. 신보는 석가의 정골사리頂骨舍利와 가사·염주 등인데, 지금도 사찰 뒤편 함백산에 남아 있는 보물 제410호인 수마노탑水瑪瑙塔에 봉안되어 있다고 하여, 법당에는 따로 불상을 모시지 않고 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절은 1713년(숙종 39) 중수했는데 낙뢰로 부서져 6년 뒤 증건하였고, 최근에 새로 두세 차례 증건하였다. 이 사찰에는 천연기념물 제73호인 정암사의 열목어 서식지熱目魚棲息地도 있다.



수마노탑

정암사를 찾아 가다 보면 강원랜드를 지나면서 카지노가 유명한 것을 느낄 수 있다. 정선군 고한읍에서 정암사까지 가는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고 가면 된다. 기도를 하려면 2층짜리 컨테이너 박스로 된 요사채(?)에서 머무를 수 있다. 적멸보궁은 평지로 다리를 건너가면 있으며 수마노탑을 향해 불단이 모여져 있다. 정암사는 다른 보궁에 비해 아담하고 아늑한 느낌이 있다.

통도사

한국 3대 사찰의 하나로, 부처의 진신사리眞身舍利가 있어 불보佛寶사찰이라고도 한다. 사찰의 기록에 따르면 통도사라 한 것은, 이 절이 위치한 산의 모습이 부처가 설법하던 인도 영취산의 모습과 통하므로 통도사라 이름했고此山之形通於印度靈鷲山形, 또 승려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이 계단戒壇을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통도라 했으며爲僧者通而度之, 모든 진리를 회통會通하여 일체중생을 제도濟道한다는 의미에서 통도라 이름지었다고 한다.

이 절의 창건 유래에 대한 《삼국유사》의 기록을 보면 신라의 자장慈藏이 당나라에서 불법을 배우고 돌아와 신라의 대국통大國統이 되어 왕명에 따라 통도사를 창건하고 승려의 규범을 관장, 법식法式을 가르치는 등 불법을 널리 전한 데서 비롯된다. 이때 부처의 진신사리를 안치하고 금강계단金剛戒壇을 쌓아, 승려가 되고자 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득도케 하였다.

이렇게 창건된 이 절은 이후 계율의 근본도량이 되었고, 신라의 승단僧團을 체계화하는 중심지가 되었다. 창건의 정신적 근거이며 중심인 금강계단은 자장과 선덕여왕이 축조하여 부처의 진신사리를 안치한 이후 오늘날까지 잘 보존되고 있다.

3대 사찰이라 함은 불보종찰 통도사와 팔만대장경이 모셔져 있는 법보종찰 해인사,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보조국사 스님을 비롯한 16국사가 나온 승보종찰 송광사를 말한다. 통도사는 경상북도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583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적멸보궁이자 불보사찰로 유명하다. 定慧社



통도사 금강계단

참고자료 <네이버 백과사전>

心爲法本 心尊心使 中心念惡 卽言卽行 罪苦自追 車轆於轍

모든 일은 마음이 근본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 법구경 쌍서품雙叙品

사미반에서 치문반 하안거 까지

법종 | 치문



작년 동안거를 송광사 강원에서
났다.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작을
했고, 지금은 치문반 하안거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사미반 시절 같이 있던
도반스님은 다른 곳으로 가고
지금은 그 자리를 다른
도반스님들이 대신하고 있다.
1명 대신 6명의 도반스님이
생겼다. 11명에서 시작해서
7명이 남았다. 작년 동안거는
정말 멧모르고 쏠살같이 지나간
한 철이었고, 이번 하안거는
나름 익숙해진 송광사 강원에서
보내는 감회 깊은 시간이 되고
있다.

지난 1월말 처음 치문반
지대방으로 이사 했을 때,
둘이서 큰 대자로 활개를 치듯
뒹굴었는데, 지금은 그 자리가
많이 좁아졌다. 그 때 쓰던
사물함은 봄산철, 복귀 했을 때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사미반 도반스님은 가고 새로운
도반스님들이 지대방을
차지하고 복귀한 나를 어색하게
맞아 주었다.

지난 동안거에는 유교경을
배웠고, 지금은 불교학 개론,
석문의범, 영어, 작문연습,
참선실수 등을 익히고 있다.
배우는 과목도 늘었고
강원생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저녁 예불 후 늘 하던 체조가
없어지고 수각을 할 시간이
주어졌고, 새벽·오후 간경이
없어졌으며, 오후에 주로 하던
운력이 강의 과목 및 학제
개편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삼시 발우공양에도 변화가
생겼는데, 국과 예비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가장
큰 것은 젓가락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마을 분들은 의아할 것이다.
그게 무슨 큰 변화인가 하고,
먹고 싶거나, 사용하고 싶지만,
그 전엔 아무렇지 않게 자유롭게
사용하던 것들을 사용치
못하다가 다시 사용한다는 것이,
아주 작지만 큰 자유(?)를 느끼게
해준 것이다.

지금은 어느덧 하안거 해제가
보름 남짓 남았다. 어설픈
사미반 햇중이 조금은 머리가
굵어진 듯한 착각을 해본다.
이곳 송광사 강원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화하고 자라나는

자신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하다. 어느덧
지나버린 시간에 노력이 많이
부족했음을 반성해 본다. 定慧社

하안거를 마치며

수암 | 치문



하안거 해제가 이제 열흘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 송광사에
입방한 것이 어제 같지는 않지만
5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다. 무엇을 하고 지낸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다.
치문반 도반 스님들은 나보다
훨씬 열심히 생활하는 것 같다.
처음 송광사에 올 때는 쌀쌀한
날씨였는데 해제가 얼마 안 남은
지금은 날씨가 매우 덥다. 처음

입방해서 치문반 스님들이
적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하안거를 보낸
스님들에게 감사한다. 물론 몸이
좋지 않아 돌아간 스님, 사정이
있어서 돌아간 스님들은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그
스님들도 돌아간 말사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기도하며 잘
지내기를 발원한다.

처음 송광사에 들어와서 강원의
여러 대중과 함께 운력하고,
반철산행도 하고, 온천에도 갔다
오고, 감자 운력도 한 것들이
나에게는 좋은 추억으로 남은 것
같다. 定慧社

두서없는 추억

시륜 | 치문



따시종은 북인도 히마찰
프라데쉬(Himachal Pradesh)
주에 위치한 티벳 난민들의

정착촌 중 하나이다.
달라이라마가 계시는
다람살라(Dharamsala)에서
대중교통으로 대략 두 시간 반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으며,
비르(Bir)에 위치한 싸까
사원과는 매우 가까운 거리이다.
이곳은 감보빠의 수제자인
팍모두빠의 환생자가 머무시며
마을을 지도하고 계신다.
사람들은 그를 캄툴린뵈체라
부른다.

마을 이름인 따시종은
'길상吉相의 요새'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이름은
티벳말인데, 인도의 마을 이름이
어째서 티벳말로 지어졌는지
의아해 하는 분이 계실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따시종
사람들의 영향력이
지역주민들에게 큰 파급을
미쳤기 때문이다. 따시종의 티벳
사람들은, 지역주민들인 인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관심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그들을 존중해 주었기에, 두
민족이 말썽 없이 화합하며
지내왔다. 그래서 원래
주민들은 자기들의 마을
이름조차 바꾸어주었을 정도로,
이곳에서 따시종의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것은 캄툴린뵈체의 지도력과
인품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객관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수행자의 면모로서 바라본 그는, 밀라레빠의 손상좌의 위치를 점한 대성취자의 환생이며, 현재에도 그에 걸맞게 박학다식함을 갖추었고, 밀교 수행의 비전秘傳을 직접 계시 받아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는 법왕의 역할을 온전히 다하는 인물이다.

당신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 '뚝댄' 이라 불리는 독특한 이들이 있다. 그들은 요기의 복색을 하고는 있지만, 비구 계율을 온전히 수지하고 밀교의 행법을 열성을 다해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특별한 제자들이다. 이들의 수행력이 탁월했기에 전대前代 까르마빠 조차도 이들을 탐내어, 그 중의 한명과 자신의 제자 50명을 맞바꾸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건넸었다고 한다.

뚝댄들의 이름은 '야' 자로 시작한다.

'아자본불생阿字本不生'이라는 구절과도 연관 지을 수 있을 이들의 이름은, 본래 불생불멸의 성품을 금생에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네 스님들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듯하다. 그래서 보통 티벳 사람들이 네 자로 된 이름을 갖는 것과 달리 이들은 단 두 자로 된 이름을 갖는다. 아추, 암잠, 암독 등등.

암틴도 그 중 한분이었다. 이미 돌아가신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당신을 그리워하여, 따시종을 찾는 이들이 끊이지 않는다. 당신의 온화한 모습과 자비로운 인품에 감화된 이는 지금도 당신을 잊지 못한다. 당신은 '뚝모'와 '야만타카'의 성취자이셨다. 뚝모는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나로 육법의 하나로, 이는 '생기열'을 자유자재하게 운용하여 '보리심의 계발'과 '공성의 통찰'을 이끌어 내고, 이들을 다시 무한히 증장시켜주는 강력한 수행이며, '야만타카'는 문수보살의 분노존 수행으로서, 생사윤회를 전전케 하는 미혹을 단숨에 베어버리는 지혜의 표상인 문수보살의 내밀한 가르침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성취내력과는 별개로 당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끝없는 따스한 기운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원했고, 이 글을 쓰는 이도 역시 그러하였다. 당신은 민족이나 성별, 나이를 구별치 않고 많은 인연들을 거두셨다. 그리하여, 당신은 한국의 제자들과도 많은 인연을 나누셨는데, 설오스님 등을 비롯한 여러 출·재가자 분들이 당신의 가르침을

전수받아 정진하시며 제방에서 활약하고 계신다. 당신과의 소중한 인연을 추억하는 이글이 비록 두서없이 끝을 맺고, 본인의 견문 부족으로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는 허물을 짓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어디까지나 돌아가신 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이렇게 펜을 들게 되어버렸다. 이 글을 읽어주신 분들은 그저 스승님을 그리워하는 어린제자의 넋두리를 너그럽이 양해해 주시기를... 定慧社



나의 강원 생활 이야기 - 첫번째

상견 | 치문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1배, 2배, 3배 절을 올리면서
 지장보살님께 참회합니다.
 잘못했으니 참회함이
 마땅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억울한 생각이 든다. 나는
 남보다 동작도 느리고 순발력이
 없어서 잘 아는 것도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곤 한다. 느릿느릿
 코끼리처럼 천천히 그러나 큰
 발자국을 남기면서 살고 싶은데
 도무지 적응이 잘 안 된다.
 그래도 여기까지 잘 버티면서
 지내왔다.
 이제 하안거 해제가 며칠 안
 남았다. 강원 생활 중에서



치문반 하안거 생활이 제일
 힘들다던데 그래도 이만하면 잘
 지내온 셈이다. 내 인생 중에서
 군대생활이 제일 힘들었는데, 올
 여름도 그때만큼 힘들었던 것
 같다. 이제 힘든 고비를
 넘어서고 있으니 앞으로 좀 더
 잘 적응해서 좀 더 잘
 살아야겠다.

며칠 후면 선거가 있다. 이런
 공약을 내는 후보가 있으면
 두말없이 표를 던지겠는데...
 “5분 30초 가반 없애겠다.”
 “저녁 공양은 후원에서”
 “아랫반을 좀 더 배려해 주겠다.”
 “1달에 2회씩 외출심의”
 ...이건 꿈일까? 定慧社

공양간

행원 | 사집



웰빙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셨나요? 그 중 하나는 우리가
 늘 먹고 마시고 하는 먹거리일
 것입니다. 근래 자연식품에 많은
 관심이 향하고 있습니다.
 무공해, 무농약, 점차 우리는
 친환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한 부분을 아주 쉽고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사찰인
 듯합니다. 사찰음식은 맛도
 영양도 좋고 고단백에다
 저지방이어서 웰빙음식으로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를 접할 수 있는 곳이 사찰의
 후원인 공양간입니다. 그 중
 한곳을 소개하자면 승보종찰
 송광사의 공양간. 누구나
 자연스레 와서 봉사도 하면서
 불교문화도 배우고,
 성보박물관에서 한국불교역사도
 이해하고, 예불·기도도 할 수
 있는 송광사. 더군다나 트래킹
 코스로도 좋은 송광사 불일계곡.
 서편제와 흥겨운 창을 생각나게

하는 남도 삼백 리를 보면서,
송광사 공양간에서 작은 봉사도
하면서 사찰음식을 배워 보세요.
청신사, 청신녀들은 송광사
특유의 호박전, 메밀국수,
김치전, 미나리전 등등을
떠올리며 다시 송광사를 기억할
것 같습니다.

내일 송광사 공양간에 오셔서
작은 봉사도 하면서 무량복덕도
짓고, 사찰음식도 배우면서,
불일계곡의 계절 정취와 함께
사찰 웰빙문화를 맛보세요. **定慧社**

반철산행

우암 | 사집



치문반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다녀왔지만, 사집반의
여름 반철산행은 새로운 느낌,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온
경험이었다. 이번 우리의 산행
목적지는 여수의 흥국사로

정하고 두 대의 차량으로
도반스님들을 나누어 태워
출발하였다.

한 시간 반 정도가 지나서야
여수 흥국사에 도착하였고, 명선
대종사 어른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간단한 법문도 들었다.
사찰 순례 중 박물관 쫓말을
보고 들어가 보았다. 그곳에서
5m가 넘는 웅장하고 거대한
탱화를 접하게 되었는데, 예전에
법당에 모셔져 있던 것이라고
하기에 정말 대단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흥국사 경내를 둘러보고 우리는
여수의 오동도라는 곳으로
향하였다. 오동도로 걸어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매우 거세게 걸음을 막아
발걸음을 더디게 하였지만, 막상
오동도에 들어가 등대에 오르니
사방이 바다로 펼쳐져 있는 것이
그 자체로 너무도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등대를 나와 대나무 동굴을
지나니 잘 꾸며진 일출 전망대가
나왔다. 전망대를 둘러보며,
도반들과 사진도 찍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나, 미처 오동도를
다 둘러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나오게 되었다.

오동도에서 운행하는 작은
열차를 이용하여 섬을 떠나왔다.
짧았지만 참 의미 있는
하루였다. **定慧社**

걸음

시안 | 사집



나는 원래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어린 시절이
빼빼 마르고 허약했고
운동신경이 없어서인지
몰라도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다.
지금의 내 체격을 보면 사람들이
상상이 잘 안 되겠지만 그 때는
병원신세도 많이 졌었다. 할머니
댁에서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시골의 좋은 환경과, 싫어했지만
할머니의 농사일을 도우는
과정을 통해서 몸이 좋아지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진학 후 1년
사이에, 보약 4첩의
덕분(?)인지는 몰라도, 몸무게가
20kg가량 늘어나면서 체격도
좋아졌다. 하지만 어릴 적부터
잘 안하던 운동을 하려고 하니
마음만 앞서고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운동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고 노력이 부족해서인지
지금도 운동은 별로다.
그래도 걷는 것은 자신이 있다.
시골에 살면서 많이 걷기도
했고, 읍내 중학교를 다니면서

토요일은 방과 후 버스시간이 4시간가량 남기에 차비로 과자를 사서 3시간 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기를 많이 했다. 그래서 걷는 데는 자신이 있고, 군 시절 1주일씩 행군을 하며 다른 동기들이 물집이 잡혀 고생할 때도, 작은 물집이 날려다가도 사라지곤 했다.

그래서인지 가슴이 답답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혼자서 무작정 걷기를 많이 했다. 걷다 보면 안정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면서, 그냥 걷는 것에서도 보여행, 등산, 자전거여행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움직이기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라 집 밖으로 잘 안 나가니 어머니께서 용돈을 주시면서 나가 놀아라! 할 정도였다. 그러다가도 한번 나가면 1주일, 열흘, 보름 정도 여기저기 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출가 후 강원을 오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인지 처음에는 방학이 되면 열심히 돌아다닐 계획을 잡았다가 막상 그 시간이 되면 시들해져서 계획이 흐지부지 되었다. 그러는 과정이 몇 번 되면서 예전처럼 여행에 대한 흥미도 조금씩 떨어져 간다. 가고 싶을 때 못 가게 되어서 그런가, 아니면 움직이기 싫어하는 내 성격 때문인가?

그래도 떠나고 싶을 때와 시간이 맞으면 일단 떠나고 싶다. 나는 걷고 있는 그 길에 그냥 빠져들고 싶다. **〔定慧社〕**

우유통

법경 | 사진



송광사 강원 해우소는 겉으로 보기에서는 다름 게 없는 수세식 화장실이다. 그러나 한쪽 벽에는 적삼을 걸어두는 옷걸이가 있고 세면대 옆에는 플라스틱 우유통이 나란히 꽂혀 있다, 먼저 해우소에 들어가면 적삼을 벗어서 비어 있는 옷걸이에 걸고 우유통에 물을 받아서 반드시 적삼을 걸어둔 옷걸이 번호와 같은 해우소 칸에 들어간다. 그 이유는 뒷사람이 들어와서 그 해우소 칸 사용여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다. 강원 학인 스님들은 대부분 이 규칙을

잘 지키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으나 해우소 위치가 등산로 옆에 있는 관계로 가끔씩 등산객들이 사용할 때는 문제가 생기곤 한다.

윗반 스님의 지시로 지저분하던 우유통을 새것으로 교체한 지 며칠이 안 되던 어느 날 해우소에 들어갔다. 매일 하던 대로 적삼을 벗어서 옷걸이에 걸려고 하는데 옷걸이는 다 비어 있는데 4번 해우소 칸에 인기척이 났다. 그래서 등산객이 사용하는구나 생각하고 3번 해우소 칸에 들어갔다. 잠시 후 불일을 마친 등산객이 나와서 손 씻는 소리가 들리더니 양치질을 하는 게 아닌가! 해우소에서 양치질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호기심에 문틈으로 지켜보았다. 이윽고 양치질을 마치자 등산객은 우유통에 물을 받더니 입안에 넣고 가글을 하는 것이다. 통이 깨끗해서 마시는 물통인 줄 알았겠지만 그 우유통은 뒷물할 때 사용하는 통인 줄 알았다면 얼마나 불쾌했을까? 옆에 뒷물통이라고 써 붙여야 될 것 같다. **〔定慧社〕**

먹기 싫은 밥도 먹으면 배부르다

진웅 | 사집



송광사 강원에 들어온 지 1년 반이 지났다. 치문반 시절은 그리 길더니 이제 사집반이라고 시간도 빨리 가는 것 같다.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만감이 교차한다. 강원에 처음 들어올 땐 시간이 제일 걱정이었다. 4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곳에서 보낼 수 있을까 생각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 지워지고 오늘은 어떻게 견딜까, 어떻게 하면 지적을 당하지 않고 무사히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보내왔다. 뭐가 그리 바쁜지 새벽 3시부터 저녁 9시까지 잠시도 쉬지 않고 예불이다 간경이다 운력이다 움직이니 매일매일 시간을 그렇게 짬지게 보낸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이 강원 생활이 힘든 건 딱딱한

일정보다도 클 대로 다 큰 성인남자들이 우글대는 곳이라 서로 간에 피곤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구조자체도 공동체 생활이다 보니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서로 신경 안 쓰고 무시하고 살면 되겠지 하고 생각도 해 보았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었다. 가장 이상적인 강원인 모습이라면 다 같이 여법하게 생활하며 서로 위해주고 하나하나 스님들이 모두 대중 시봉하는 자세로 살면 서로 간 피곤한 일도 없이 참 좋겠지만 이상향일 따름이다. 이렇게 딱딱한 일정 속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1년을 보내고 사집반이 되었는데 좋던 싫던 작년 1년간의 치문반 생활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것 같다. 피곤함 속에서 간경하고 수업하며 배운 치문은 공부하는 습관이 되어 지금 경전을 보고 공부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가장 어려웠던 일 중 하나였던 앉아있는 일도 이제 몸에 배어 아무 느낌이 없다. 도반들과의 관계에서도 상대를 보기보다 나를 먼저 바라보게 되고, 전반적으로 작년 1년의 힘겨움이 현재의 생활에 토대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 강원 생활이란 것은 본인이 원해서 왔던 타의에 의해 들어왔던 일단 들어오면 그 온 이유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큰 배를 타고 목적지에 가듯이 매일 삼시 예불하고, 발우공양하고, 공부하고, 운력하면서 다 같이 수행이 되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부가 되고 내공이 쌓이는 것이다. 먼저 발심해서 수행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그렇지 않고 수행하는 사람 곁에서 보고 따라하고 같이하며 힘들어 하면서도 그 끈을 놓지 않으면, 그 역시도 훌륭하다 할 수 있다. 밥이 먹기 싫은 아이에게 엄마가 억지로 밥을 먹여도 그 밥의 공덕이 있는 것처럼 수행도 이러한 대중처소에서 한다면 혼자 하는 것 보다 몇 배는 수월하다 생각한다. 定慧社

보름달

혜담 | 사미



사람들은 가끔 하늘을 본다.
나는 가끔 눈을 감고 하늘을 본다.
운이 좋으면 변화무쌍한 흰 구름을 볼 수 있고
운이 나쁘면 변화무쌍한 검은 구름을 볼 수 있다.
기분이 좋으면 한가한 둥실 구름을 볼 확률이 있고
기분이 나쁘면 칙칙한 먹구름을 볼 확률이 있다.
각양각색의 많은 구름과 주변 자연환경의 모습이 있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만 보고 생각하며 살아간다.
나는 작게 이야기 해 본다.
보름달을 보라! 원래 본연의 모습이다.
밝고 선명하게 빛나고 있지 아니한가.
자기 자신을 보라. 얼마나 밝게 빛나고 있는 소중한 모습인가를!
보름달을 보려면 시간이 흘러 보름이 되어 하늘을 봐야 볼 수 있듯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갈고 닦으면 시간이 흘러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아니한가.
구름에 가리어 안 보인다 하지만 달은 항상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때가 되면 밤하늘을 밝히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정진하여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보름달처럼
많은 중생을 인도하여 보름달처럼 밝게 빛나길 바랍니다. [定慧社]

나의 강원 생활 이야기 - 두번째

상견 | 치문



처음 강원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하고, 도무지 하나하나 부딪히는 것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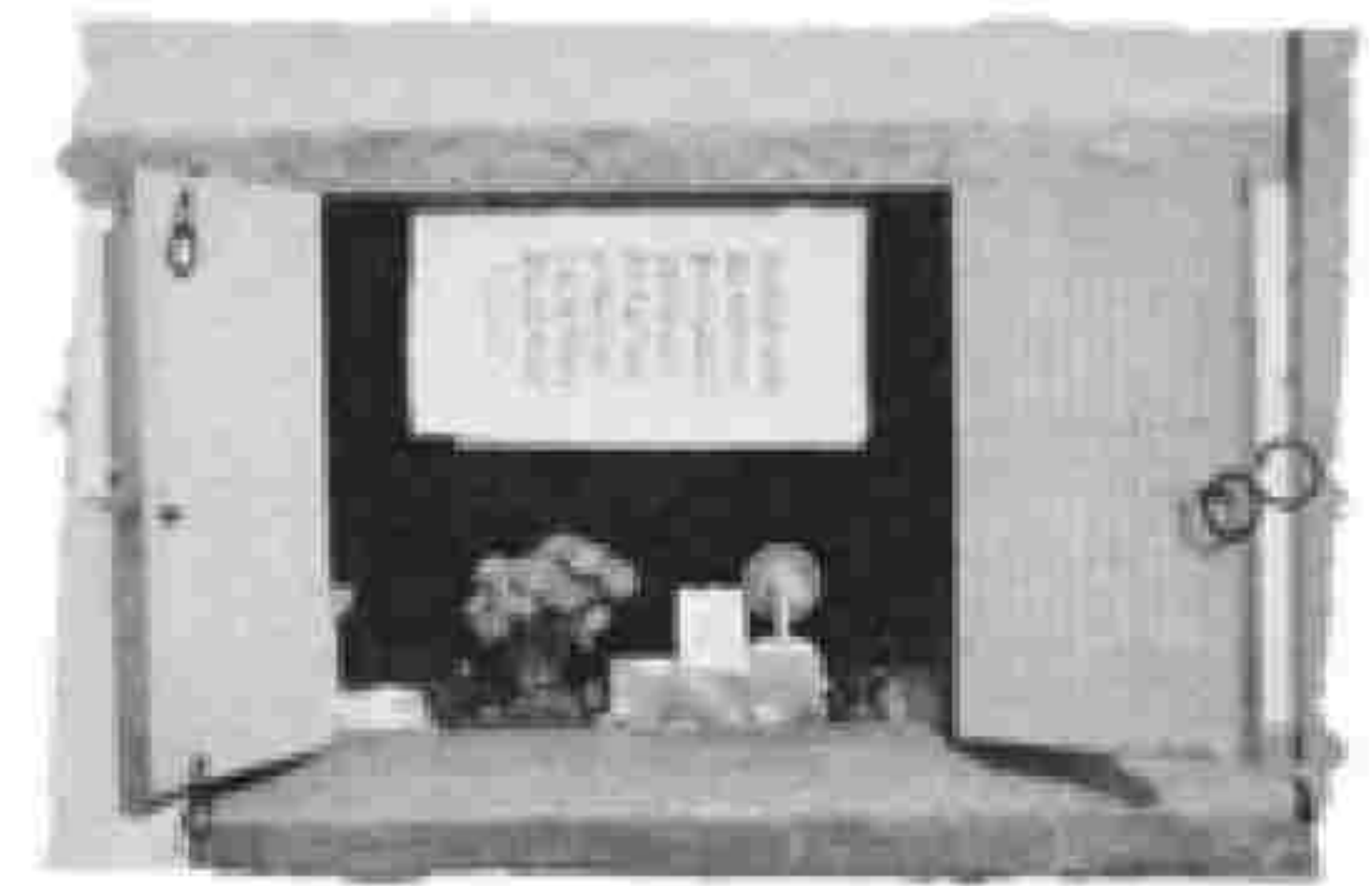
있어서 힘들었다. 윗반 스님들의 눈치 보기 바빴다. 혹시 내가 잘못해서 우리 도반 스님들 힘들지나 않는지 걱정되어 매사가 조심스러웠다. 송광사의 여름은 습하고 더워서 무척 힘들다고 해서 지레 겁먹었는데, 실제 올 여름은 그렇게 더운 줄 모르고 지냈다. 단지 땀을 좀 흘리고 모기 때문에 잠을 설쳤지만 더위는 견딜 만 했다. 하안거의 고비를 넘기고 나니 강원생활에 좀 적응이 되어서인지 조금은 여유가 생겼다. 가을 산철은 언제 지냈는지 모르게 지나갔고,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동장군이 떡 버티고 서있는 동안거도 어느덧 반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추위엔 많이 약한데 제일 추운 1월 달을 어찌 넘길지 걱정이 되지만, 여태까지 견뎌온 저력을 밀바탕 삼아 잘 견뎌 주리라 믿는다.(몸아, 파이팅!) 아직 채 1년도 안 되었지만 그동안 도반들이 많이 챙겨주고 또 서로 격려해 가면서 잘 지내왔다(때론 서로 티격태격 하기도 했지만). 여럿이 모여 산다는 게 힘들기도 했지만, 모든 일을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둘이서 하는 게 낫고, 둘 보다는 셋이서, 또 여럿이 함께 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 여러 면에서 모가

많이 낫는데 조금은 등글등글해진 것 같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스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시룬스님을 보면서 고마움을 느낀다. 송산스님은 매일 스무 번도 넘게 내 법명을 불러준다. “상견스님! 상견스님! ...” 그리고 내가 대답하지 않으면 자기가 “네” 하고 대답하곤 웃는다. 여공스님은 몸으로 하는 일은 뭐든 도와준다. “힘들지 않느냐?” 하면서 많이 챙겨준다. 범종스님은 다각물 먹기 전에 꼭 나한테 물어본다. “드시겠습니까?” 수암스님은 항상 가부좌를 하고 앉는다. 참선요가도 열심히. 이렇게 각기 나름대로 서로 격려해 주는 도반들이 있어서 나름대로 버텨왔다고 생각한다. 또한 윗반스님들의 생활 자세에서도 많은 것을 배운다. 바쁜 생활 속에서도 틈만 나면 참선을 열심히 하시는 스님, 항상 말이 없으면서도 아랫반 스님들 챙겨주시는 스님 등등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몰랐던 나의 단점을 고치고 그들의 장점을 많이 배웠다. 또한 그 마음을 느낀다. 한 윗반 스님이 나에게 묻는다. 강원생활 재미 어떠냐고. 그 스님은 무척이나 재미있다고 한다.

나의 대답 : “나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에는 좀 재미있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든다. 定慧社

한해를 보내며

수암 | 치문



불기 2555년이 지나가고 있다. 송광사에 들어와서 봄을 보내고,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보내고, 다시 겨울이 왔다. 일 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무언가를 위해 보냈는지 무엇을 하면서 보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다지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다. 여러 도반스님들이 이곳을 떠났고 여러 도반스님들은 이곳에 남았다. 얼굴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것도 다른 만큼 개성들도 강한

스님들이다. 그래서 출가한지도 모르겠다.

출가라는 것을 한 후에
행자생활을 거쳐 지금에
사미승이라는 위치에 있는 지금
점점 부처님에게로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가끔은
뒷걸음치며 나아가고
쓰러지기도 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 길이 내가 가고 싶어
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소중한 일이라는 것은 의심치
않는다. 지금 회색 옷을 입고
아침저녁으로 예불 드릴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아주 많이 감사드린다.
이젠 강원생활도 적응이 되어
가는 것 같다. 앞으로 남은 삼
년의 시간도 시간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따라
내 자신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定慧社**

절과 스님

송산 | 치문



절은 쓰레기장입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의 더러운 것을 다
버리고 가는 곳이기도
쓰레기장입니다. 분노라는
쓰레기, 탐욕과 어리석음 이라는
쓰레기, 고통과 번뇌와 같은
쓰레기들을 다 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절입니다. 그리고...
버려진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청소부가 수행자인
스님들입니다. 분노, 탐욕,
어리석음, 고통, 번뇌라는
쓰레기들을 한 데 모아 처리하는
게 수행자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수행자들은 항상
깨어있어야 할 것이며, 매일
매일을 열심히 정진하여, 절에
버려진 마음의 쓰레기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분리수거하여
버려질 수 있도록 지혜로운
청소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절에 와서 마음의
쓰레기들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나서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스님들의 또 다른
책임이며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定慧社**

나의 다짐

혜정 | 사집



출가하기 전, 송광사 신도회
불자로서 약 3년간 다녔다.
그리고 여름 선수련에도
참가하였고, 매년 부처님 오신
날과 삼월불사 등 행사가 있는
날이면 왔었다. 속세에 치달린
생활과 항상 긴장·고통의
환경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인연들에 대해서 한 달에
한번 정도이지만 벗어나는 것이
좋았다. 일주문을 통과하면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과 일, 환경 등
인연들에서 탈피하는 기분이
들어 좋았다.
그래서인지 더욱 더 송광사가

좋았고, 송광사 편액만 봐도 가슴이 설레게 되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나는 출가를 결심하고 속가와 회사를 정리해 나갔다. 그러나 나의 마음속에서는 출가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막연히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스님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나 자신에게 몇 번이고 반복하였다.

나는 가식적으로 도를 깨닫기 위해 출가하는 것이다 라고, 본심을 포장하였다. 그래서인지 나의 마음 한 곳에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출가했다는 생각이 있다. 막연히 부처님이 좋고, 절이 좋고, 스님이 좋아서이다. 나는 사회의 낙오자라는 명예를 지고 지금껏 생활해 왔다.

하지만 출가한 지 3년쯤 된 이 시점에 나에게 질문을 다시 해본다.

“현실도피냐고”

아니다. 분명히 목적이 있다. 출가의 목적,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나 자신을 믿는다. 그리고 이제는 아니다. 현 세상과 소통하는 불교를 배워야겠다. 부처님께서도 45년간 중생을 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80세의 노구를 이끌고 꾸시나가라로 향한 것처럼... **定慧社**

Getting people to ask Who is Buddha

미산 | 사집



In all of my years growing up in America, I would have never fathomed to even the slightest degree of becoming a monk. To me this world of monasteries and Bodhisattvas didn't even exist. If you were to tell me back then that the teachings of Buddha were the truth of life, I would have asked who is the Buddha. Given that the history of American society as well with our constitution is richly endorsed and implicated into the Christian ideology, the question, "Who is Buddha?" hasn't been adequately asked enough in our society. It is a shame and regretful statement to make however it is also one that could be changed through a more

ambitious agenda. Asking this question and finding this answer is a fortune that is greater than any treasure of gold. It is an extreme blessing amounted to the highest of heavens and one that is free of any price tag. It a question that I hope is shared amongst all of humanity and pray that this question could be a spark to revolutionize the thinking in all Americans.

미국에서 자라온 시절동안, 나는 스님이 되는 것에 대해 조금도 헤아려 본 적이 없었다. 심지어 불교사원과 보살들의 세계는 나에게 존재하지도 않았다. 만약 당신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인생의 진리라고 말해주었더라면, 나는 부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것이다. 미국 사회의 역사와 또, 기독교 관념으로 농후하게 점철되고 얽혀있는 우리의 성향으로 보면, “부처님이 누구지?” 라는 질문은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물어보기엔 어울리지 않는다. 이것은 작성하기에 창피하고 유감스러운 진술이지만, 또한 보다 더 큰 안전을 통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 질문에 묻고 답을 찾는 일은, 그 어떤 황금 보물들보다도 값진

행운이다. 이것은 가장 높은 하늘세계 만큼이나 그리고 어떤 가격표도 붙일 수 없는 대단한 축복이다. 내가 바라는 질문이 전 인류 사이에서 공유되어져서, 이 질문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사고의 혁명을 일으킬 불씨가 되어주기를 기도한다. **定慧社**

송광사의 외나무다리

우암 | 사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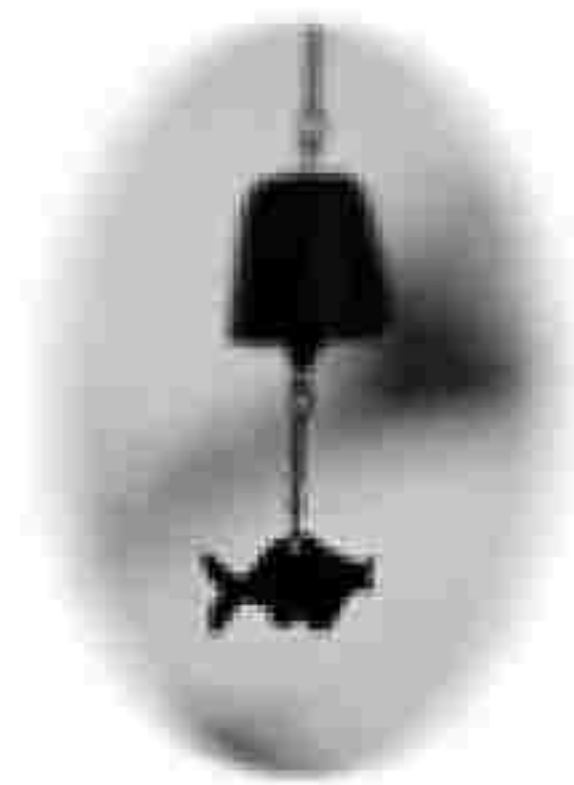
항상 위태위태해 보이지만 우리들의 다리가 되어주는 송광사의 유일한 외나무다리를 보고 있다 보면 그 모습이 우리들의 오욕락을 표현한 것보다 같다는 생각이 든다. 다리 양쪽이 끈에 매달려 있는 것은 우물 속의 침녕쿨 같아 보이고, 송광사에서 지켜온 세월은 녁쿨을 잡아먹는 흰 쥐와 검은 쥐를 연상케 하고, 모진 장마 비에 계곡의 물이 넘치는 속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는 모습은 온갖 번뇌에 시달리는 우리의 위태로운 형상을 떠올리게 한다. 그럼에도,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아무런 불평 없이 다시 우리들이 건너다닐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외나무다리. 이런 외나무다리가 나에게서 또 하나의 교훈이 된다. 평상시에 평화롭고 고요한 다리의 모습만 기억하고 있는 것은, 마치 우물

속의 벌꿀을 탐하는 것에 정신이 팔려 닥쳐올 위험을 대비치 않는 것과 같아, 나의 안일한 생활을 반성케 한다.

이렇게 송광사와 연결되어있는 외나무다리를 보고 있다 보면, 이런 무정물들조차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 나는 참으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 글을 나의 마음을 다시 다지는 계기로 삼을 것이다. **定慧社**

사족

정원 | 사집



정혜사지에 실릴지도 모를 글을 쓰고 이리저리 교정도 해보고 차분히 읽어보니, 그런 면을 없애고 없애려고 고쳐보아도 그 안에는 나 잘난 척이 들어있는 것 같고, 필요 없는 인생 이야기가 들어있고,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이 살아있고, 책임져야만 하는 글들이 자꾸만 보여, 고치고 고치다보니 글이 죽어 버렸다.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은 하나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도자기를 깨부수지만, 나에게서 그 하나도 필요 없을 것 같다. 사족을 달려고 하고 있다. **定慧社**

다짐

법경 | 사집



절반을 살아온 즈음에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니 참으로 잘 산다는 게 어려운 일 같다. 자식으로서,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학생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출가한 수행자로서...

한 때는 남을 위해 먹을 것을 적게 먹고, 힘든 일을 먼저하고, 좋은 것은 배려하여 양보도 해 보았지만, 세월이 흘러 여러 가지로 힘들어 지면서 나만을 위하여 살고 싶어졌다. 그래서 주변정리를 하고 출가를 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온 것이 남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나를 위해 산 것이란다. 진정 이타행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며 앞으로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겠다. **定慧社**

출가

일몽 | 사집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가장 잘 한 일이라면 발심하여 출가한 일이다. 흔히 절 집에서 머리 깎고 스님으로 살려면 전생에 많은 복을 지은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 출가자로 인해 구족이 승천한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도반스님들도 그렇듯이 출가하기까지는 많은 고민과 동기 부여가 있었을 것이다. 발심한 계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다들 보다 더 행복해지고 열심히 살기 위해 출가했을 거라고 생각된다. 절 집 생활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반복되는 생활에 힘든 점, 어려운 점들도 많다. 하지만 항상 처음 머리 깎았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생활하면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초발심시변정각’ 이라는 말도 있지 않는가.

추위에 떨며 행자생활을 한 거 같은데, 벌써 사집반 동안거가 다 지나가고 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가끔 변한

모습을 보면 깜짝 놀랄 때도 있다. 은사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신다. 최소 10년이 지나야 스님으로 인정해 줄 것이고, 그 때가 되어서야 출가인지 가출인지 알 수 있다고 하신다. 그만큼 속 때를 벗겨내고 진정한 수행자가 되기는 힘들다는 말씀이신 것 같다.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하루하루 헛되이 보내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면, 강원생활도 마칠 것이고 비구계도 받고, 10년이 지나면 어엿한 한 사람의 수행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항상 좋은 일 행복한 일만 있기를 기도하고 발원할 것이다.

일몽 파이팅! **定慧社**



동주 원명스님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 위치한 흥원사는 도심 속 사찰이다. 흥원사 회주이시며 조계종 어장스님 동주 원명스님께서 올해 전통의례 전승원을 시작하신다고 한다. 이번 탐방은 스님의 제자이신 정오스님의 추천으로 이뤄지게 되었다. 덕분에 송광사에서 천리나 되는 이곳을 1박 2일 코스로 다녀왔다.

철의 위치가 김포 공항에서 가까워서 비행기의 유혹도 있었지만 고속열차를 이용했다. 편집장은 이 절과 인연이 있어서 두어 번 간 적이 있고 어장스님도 한 번 뵈었기에 낯설지가 않았다. 얼마 전에는 송광사에 오셔서 염불 강의도 하셨다. 어떻게 하면 소리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어장스님을 찾아뵈었다. - 편집실

○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 올해부터 흥원사에서 한국불교 전통의례 전승원을 준비하시고 계신다는데, 먼저 전승원을 준비해 오신 과정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승원을 오래전부터 시작하려고 십여 년 전부터 종단에 요청을 했는데 이게 잘 안됐습니다. 이유는 전승원이 특수학교인데다 이미 어산학교가 종단에 교육인가를 내고 교육을 하고 있어서 서울에서는 또 하나를 내기 어렵고, 지방 같으면 서울에 못 오는 스님들을 위해서는 인가를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시간상 지방에 내려가 가르칠 수 없어서 꼭 서울에서 하겠다고 하니 종단에서 몇 차례 난색을 표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요청하고서는 계속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교육원장스님께서 특

별히 마음을 내셔서 작년 10월 25일에 교육원으로 부터 인가를 받고 올 3월 초에 개강을 시작합니다.

제가 전승원을 시작하려는 것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의식이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의식은 종교를 유지·발전시키고 신도들을 교화하는 방편으로 중요한 하나의 핵심인데 지금 조계종에서는 의식에 대해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1954년 불교정화 이후 조계종은 수행에 치중하고 참선을 강조하다 보니 부처님께 올리는 불전의식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그렇게 수십 년이 흐르다 보니 의식이 단조롭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범패를 배우고 재의식을 배우다 고 하니 '대처승이 되려고 하느냐? 무당 종이 되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하와 멸시를 받았습니 다. 배우는 사람이 생겨야 그것이 계승·발전하는 데 전반적인 종단의 풍토가 의식을 배우는 것을 완 전히 중노릇하는 것과 거리가 먼 판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취급을 하고 참선만을 강조하고 아주 무시 해버리니 소멸되는데 이르렀습니다.

제가 범패를 배울 때 끊어져 가는 범패의 맥을 잇 고 후학을 잘 가르쳐야겠다는 원력을 세웠습니다. 막상 범패를 배우고 나니 범패만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참선과 수행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선방 에서 정진을 했습니다. 해인사, 통도사를 비롯해 74 년, 75년에는 송광사에서 구산스님 생전에 수선사에서 안거를 났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은사스님 의 연세가 많으시고 시봉을 해야 되어서 주지를 부 득이 맡고 지내다보니 후학을 가르쳐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80년 초에 상도동 사자암이라는 고찰의 주지 를 맡게 되어서 거기서 젊은 스님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94년 종단개혁이 일어난 이후부터 여 러 차례 총무원에 요청을 해서, 처음에는 지금 지은 총무원 청사에 방 하나만 주면 내가 거기서 범패를 가르치겠다고 요청도 해보고, 그러다가 우리 절에 서 가르칠 테니 인가를 내 달라고도 해보았지만 허

락이 나질 않았어요. 그게 아마 십여 년이 지속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되었으니 3월 달에 개 강하면 아주 열심히 가르치려고 그래요.

○ 전승원의 교육방향과 과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조계종에서도 이 범패, 어산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가지고, 우리 전승원에서는 어산 의 기초부터 전문적인 것을 가르치려고 그래요. 전 문가가 되려면 처음부터 모조리 배우는 게 좋아요. 문제는 20년 전후로 해서 이것을 배워야 되는데 지 금은 출가연령이 40세 이상 50세가 가까운 사람들 이니까, 사실 목이 다 굳은데다가 앞에 배운 것을 뒤에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이것을 재 에서 쓰면 되는데 재에서 쓰는 소리는 몇 가지 밖에 안돼요. 안 쓰는 소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 배 유을 뿐이지 생전 쓰지를 않고 그렇다고 쓰지 않는 소리를 계속해서 연습한다는 것이 힘들거든요. 쓰 는 소리는 다 못하는데 그러니깐 앞에 배워 가지고 뒤에 잊어버리니 효과가 별로 안 나는 교육이에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앞서 말한 대로 40대, 50대 출가한 스님들이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재 를 맡은 어장스님이 영산소리에는 무슨 상주권공을 빼가지고 그때그때 현장에 맞춰 가지고 시간에 따 라 하기 때문에, 처음 하는 초보자는 언제 무슨 소 리를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실질적으로 재에서 상용해 서 쓰는 필요한 소리만 추려 가지고 이를 위주로 해 서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몇 년간의 전문과정과 연구과정이 있고, 이런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은 이 제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쓰는 소리를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2시간, 3시간, 5시간, 10시간, 하루 종일 등등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서 5, 6시간일 때는 어디까지 하고, 하

루 종일일 때는 어떻게 하며, 또 밤을 새워서 하는 재는 어떻게 하는지 등을 구성해서 가르칠 계획입니다.

내가 후학을 가르치고 맥을 이어야겠다는 생각은 범패를 배울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주 체계 있는 이론교육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배울 때에는 이론 없이 어른스님들이 시키는 대로 순전히 소리만 배웠는데, 지금 행자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시켜보니깐 '왜요?, 어째서요?' 이런 질문이 꼭 붙어요. 서양교육에 물이 들어서 꼭 물음표가 붙더라고요. 그러니 이론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전수사가 너댓 명이 돼요. 나 혼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오스님도 가르치고 또, 작법 전문하는 스님이 가르치고, 이론도 중앙대학교 음악박사 받은 스님이 있어 그 스님이 가르치고, 바라하고 나비춤 가르치는 비구니 스님도 따로 있고 해서, 이론 가르치고 소리 가르치는 기본과정은 그 스님들이 가르치고, 실력이 좀 오른 스님들은 주로 내가 가르칠 거구요.

○ **종단의 의례 한글화와 관련하여 전승원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시는지요.**

한글화 의식 역시 중요합니다. 종단적으로 한글화를 상당히 강조하는데 시대적으로도 한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대학교를 나오더라도 아버지, 어머니 성함을 한자로 못 쓰는 사람이 7,80%가 된다고 하니, 지금 세대와 소통을 하기 위해서도 한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불교 전통의례 전승원에서는 진감국사로부터 내려오는 맥을 잇고 교육할 뿐만 아니라 한글세대에 맞는 것들을 하려고 그래요. 종단에서 지금 한글화작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나도 의례위원의 한 사람으로써 여기에 일조하고 싶어요. 현재는 반야심경까지만 마쳤고, 예불문, 천수경, 불공시식을 한글화해 가는데 이것도 굉장히 난해한 작업입니다. 번역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 뿐만 아니라 그 운곡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 천수경, 반야심경, 법성계, 무상계 등 송주하는 의식들은 풍송조로 하면 되니깐 별문제 없는데 불공시식, 다비식 등은 어떻게 곡조를 붙일 것인지가 큰 난제이고 과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난 번 주장하기를, 한문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은 좋은데 그 운곡 곡조를 붙이는 것은 우리 범패의 전통가락에 의해서 해보자 이랬어요. 예를 들면, 부처님 불공하는 것은 유치성이라는 음성이 있어요. 범패에 또 시식, 관음식이나 종사영반은 차거성이라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또 관육이나 구병시식 등은 평계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다 소리가 달라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소리를 접목해야지 덮어 놓고 그냥 읽으면 이걸 가르칠 것도 배울 것도 없어요. 가르치려고 하면 이런 기준이 있어야 한단 말이지요.

근데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문은 음 고저가 있잖아요. 성조 즉, 거성, 평성, 입성, 상성 등이 있어서 중국 사람들은 이 성조에서 뜻을 전달하지요. 범패는 진감국사가 당나라에서 배워 왔기 때문에 높고 낮은 자리에 의해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천수경 같은 경우 보통 4글자씩 4·4조로 떨어져서 독송하기도 쉽고 음성내기도

쉬운데, 범패의 경우 산문으로 성조에 상관없이 번역해 놓으면 운곡 넣기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지요.

그래서 의례원에 건의하기를, 음악을 모르고서는 글자대로 번역된 내용에 운곡을 붙이기 어려우니, 음악을 하는 전문가가 참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랬지요. 실무위원으로 정오스님, 법안스님이 있지만 그분들은 다 전통음악만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글자에 운곡을 쉽게 떼고 붙이기 위해서는 현대음악의 도움도 있어야 하나지요.

○ 국제포교와 관련하여 예불문 등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하시는지요.

거기까지는 작업이 미치지 못하죠. 아직 종단에서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이나가요. 현지 사정을 보자면, 미국의 송산스님 절에 가보면 오분향례는 우리식으로 먼저하고 그다음에 영어로 해요. 예불은 우리식대로 하는데 다시 반야심경은 영어로 하고, 스페인 가면 스페인어, 프랑스가면 프랑스어로 하고 그러더라고요.

○ 현재 범패의 전승실정은 어떠한지요.

수륙재 명맥이 끊어지게 생겼어요. 수륙재가 모든 재의 근본이에요. 『한국의례총서』라고 옛날 의식집 90여 종을 망라해서 세민스님이 만들어 놓은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전부 수륙재입니다. 예수재, 영산재는 전부 다 여기서 파생한 부분인데 영산재만 문화재로 지정 되니 여기에만 치우쳐 가지고, 사람들이 그만 수륙재는 물가에 가서 방생 하는 정도로만 알아요. 수륙재가 제일 복잡하고 큰 재예요. 1950년 이후로 수륙재를 하는 사람이 송암스님 혼자였어요. 그때 다른 소리

를 전하는 사람은 많았는데 수륙재하는 스님은 송암스님 하나야. 그런데 그것을 배운 사람은 하나고 그리고 우리 정오스님이 나 다음으로 송암스님한테 배웠다 하니 결국 두 사람이 전부예요. 수륙재는 내가 없으면 끊어질 위기여! 의식집의 핵심인 이렇게 중요한 재가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전통문화인데. 그래서 기초 소리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수륙재를 전문적으로 가르쳐서 전통의 맥을 잇는 것도 큰 과제예요.

○ 범패의 중요성에 관하여 설명해 주신다면.

전통적인 것은 이제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서 종단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나를 어산어장으로 지정했고, 어산학교를 만들고 우리 전승원도 인가를 내줘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게 특별히 배려를 해줬는데, 사실 이런 소리는 어렵기 때문에 소수자에게만 필요한 것입니다. 대중적으로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희소가치도 있고 문화재적 가치도 있기에 누군가에겐 가르쳐야 합니다. 전승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훌륭한 문화가 있음에도 그전까지 외국으로 눈을 돌려서 외국 가수들이 오면 엄청나게 돈을 받고 하더라고요, 자리가 없었잖아요. 세종문화회관이니 예술의 전당이고 자리가 없었어요. 그 값이 10만원, 20만원 주는 자리도 예를 들면, 세종문화회관 대강당 같은데서 조수미 같은 세계적인 유명한 가수가 10년 전에도 벌써 공연을 하면은 S석은 15만원, 20만원해도 자리가 없었어요. 근데 국악, 판소리를 하면은 돈 2만원, 3만원 하더라도 그 자리가 텅텅 비었어요. 이렇게 우리 것의 가치를 몰랐죠.

카네기홀이라든지, 오페라 하우스 같은 세계적 명성을 날리는 곳에서는 1, 2등이 아니면 그 무대

에 설 수도 없는데 우리나라 국악 같은 사물놀이, 판소리든지 가곡들이 무대에 오르면 그냥 기립박수를 몇 분씩 받는다고 그래요.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한국문화를 사랑하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외려 한국 사람들은 우리 것 귀한 줄 모르고 외국 것 가져와서 그것만 듣고 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상황이 역전되니 ‘아이고, 우리 것이 그렇게 훌륭한 것이었구나!’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됐단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5천년 역사를 갖는 문화민족이라고 어디다가 자랑하는데, 불과 50년 전만 따져 보세요,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은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신라, 고려 때의 것들이 우리 국보, 보물들인데, 세계 사람들이 경탄을 한단 말이에요. 외국에서 우리 국보를 전시하면 찬탄을 마지않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몰랐어요.

지금은 특하면 문화민족이니 5천년 역사니 떠들어 대고 있는데, 사실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면 웃긴 소립니다. 외세의 영향이 있었던지 없었던지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우리문화를 자각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범패도 마찬가지입니다. 범패도 여기서 문화재로 책정된 것이 아니에요. 지정은 우리나라에서 했지만 결국 외세의 힘이에요.

왜 외세의 힘이냐 하면, 6.25가 지나고 자유당 때 1950년 말 60년 초 이때에, 서울대, 연세대, 이대 이런 소위 한국의 일류대학을 졸업한 이들이 유럽으로 학위를 받으려고 유학을 갔습니다. 그 때만하더라도 녹음기가 굉장히 귀할 때니까 유학 가는 돈 많은 사람들만 구해 가지고 국악을 녹음해 가져갔단 말이지요. 그중에 절에서 재 지내는 소리를 몇 사람이 가져갔는데, 그곳의 권위 있는 교수들이 이를 듣고는 아주 경악을 했단 말이지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있냐고.

그리고 그들이 박사학위를 받아 가지고와서 신문에 냈어요. 신문에다 라디오에다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소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천지를 조사했습니다. 공영방송에선가 며칠 동안 녹화 조사를 하고 녹음하고 이렇게 해서 문화재로 지정될 줄 알았는데 안됐어요. 몇 년 후에 2진들이 박사를 받고 돌아와서는 텔레비전에 나와서 떠들어 가지고 여론에 밀려서 지정되었어요. 담당자 책상서랍에 조사해 놓고 몇 년 낮잠을 자고 있다가 결국 여론에 의해서 지정됐죠. 73년에 중요문화재 50호로 지정했는데 그게 1차 때 조사해서 됐다면 67,8년에 됐을 겁니다. 그랬으면 30번 안쪽으로 지정 됐을 텐데요.

○ 스님께서 범패에 뜻을 두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범패를 배운 것은 은사스님의 영향입니다. 클 대(大)에 숨을 음(陰)자를 쓰셨던 대강백이셨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서구문물들이 막 쏟아지는 그 시절에 내전에만 밝으신 것이 아니라 신학문도 알아야겠다고 결심하셔서, 법주사 강원 강사를 하시다가 22살 때 일본유학을 떠나셨습니다. 도쿄 동양대학 인도철학과에 들어가서 2년간 수학하시다가 학비가 없어서 휴학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학비를 마련하셨는데 졸업할 때까지 인력거, 과일장사, 빌딩 유리창 닦기 등등 안 해본일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졸업 후엔 또 동경제국대학(지금의 동경대학)에

서 3년간 사학철학하시고 한국으로 돌아와 대학교수가 되려고 하셨는데, 이미 유학 갔다 온 사람이 많아서 교수는 여럿이 있는 반면 포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포교사가 되려면 내전과 외전을 두루 알아야하고 의식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 3가지를 갖춘 사람이 우리 스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7살에 사미계를 받으시고 14살까지 영산재를 배우신 우리 스님만큼 적합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조선불교 포교사 1호로 남북한을 돌면서 10년간 포교에 매진하셨습니다. 그때는 재를 밤 새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법문과 재를 많게는 하루에 7차례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포교의 원력을 세우셔서 불교청년단을 조직해서 목탁, 북 등을 치고 깃발을 앞세워서 광화문이고 서울역, 탑골공원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모여들면 거기서 법문을 하셨습니다. 또 만주 봉천의 관음사 주지를 맡아서 서울에서 기차로 이틀 사흘간 이동할 때 이 칸에서 저 칸으로 약장수처럼 다니시며 법문을 하셨는데, 1930년대 이야기니 7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포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 생에는 성불을 늦추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불법에 귀의하도록 포교를 하겠다고 원력을 세우셔서 젊어서는 포교에 미쳤다는 소리까지 들었다 합니다.

은사 스님께서 이결(범패) 배워야 중물이 든다고 하셨는데 그 시절 어디 가서 중노릇할 줄 안다고 하면 재를 지낼 줄 안다는 것입니다. 서울지역과 달리 아래 삼남지방(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는 스님이 되면 사미율의, 치문을 먼저 가르치고 서울을 중심으로 전주, 개성, 평양에서는 재부터 가르쳤어요. 그 시절에는 스님들이 살기가 엄청 어려워서 탁발로 쌀이라도 얻어 연명하고 또 재를 지내야 먹고 살 수 있으니 이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상주권공 기초과정 서너 달만 배우려고

정벽응스님이 계셨던 화장사에서 5~6개월 배우고 다시 신촌 봉원사에서 송암스님께 배웠습니다. 봉원사에서 배울 때 노전스님 방에 기거했는데 거기는 태고종 절이라 아래쪽에 승촌이 있었어요. 저녁예불까지 각 전각 스님들이 예불을 모시고 그 이후에는 절 축대 위로는 나 혼자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때는 송암스님도 한 달에 25일 이상을 재가 있어 나가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7시쯤 큰방에 오셔서 15분~20분정도 가르쳐 주시고는 아침공양하시고 나가셨어요. 나는 30분 이상 소리를 배운 적이 없어요. 하루 종일 배운 소리를 연습하고 재를 지내고 남는 시간에도 연습하고, 저녁에는 10시까지 아무도 없어서 큰소리로 큰방에 들어가 연습을 했어요. 그냥 소리만 한 것이 아니라 태징도 치고 도량을 돌 때는 실제로 돌면서 재 지내는 실제 모습 그대로 하면서 연습하고 배웠습니다.

○ 범패를 배우면서 겪으셨던 어려웠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점들을 말씀해주신다면.

송암스님은 보문동 탑골승방(지금의 보문사)을 다니면서 소리를 가르치셨고, 우리 은사스님은 용인 화운사에서 비구니스님들을 가르치고 계시면서 서울에 법문하러 한 번씩 오시는데, 오시면 한 10군데에서 법문을 하시느라 사흘에서 닷새 만에 내려가십니다. 하루는 송암스님께서 탑골승방에서 소리를 다 가르치시고 우리 스님께 인사하러 방으로 들어가니, 은사스님께서 송암스님께 절을 하시면서 ‘스님, 우리 원명이를 참회상좌를 삼아가지고 스님이 알고 계시는 한, 하나도 빠짐 없이 다 잘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송암스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이것을 빨리 배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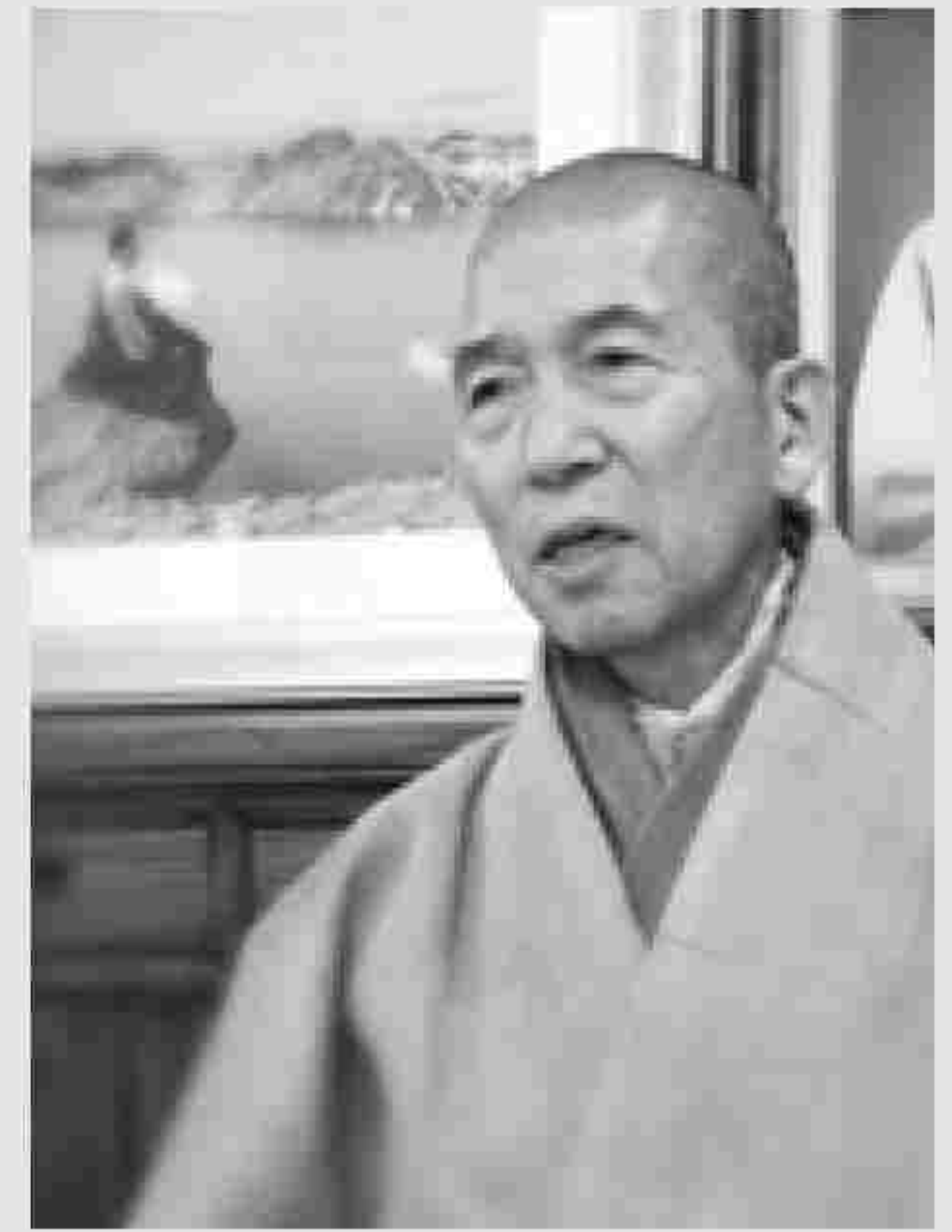
서 선방에 가야지하는 생각 때문에 더 빨리 배웠는지 몰라요. 다 배우고 선방을 가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습니다.

송암스님께서서는 수백 명을 가르치셨지만 저같이 지극정성으로 가르친 제자가 없을 겁니다. 나도 태어나서 그 스님만큼 정성으로 시봉한 분은 없어요. 봉원사에서 50여 명 대중들이 공양을 할 때 송암스님은 어간에 앉아 계시는데 공양하다가 눈이라도 마주치면 스님이 밥을 덜고 싶은지 더 드시고 싶은지, 반찬이 더 잡수고 싶은지 벌써 마음이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가르쳐 주셨으면 이심전심으로 통하겠습니까? 이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와야 가능합니다. 재가 끝나면 내 장삼 가사는 그대로 하고 스님 것 먼저 개어 보따리 싸 놓고 그리고 내 것 간단 말이죠. 거기서 공양하고 나오면 신발도 척 돌려 나가서 신기 좋게 해드리고 딱 한발자국 두발자국 뒤에서 모시고 갔단 말이죠. 사미율의에 자기 스님이랑 나란히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런 거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천적으로 잘 알았는지 몰라요. 중 된지 몇 년 안됐는데 말이지. 그 정도 하니까 있는 정성을 다 나한테 쏟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문사, 방송국에서 나와서 물으면 내가 후계자라고, 인터뷰 할 때마다 그러셨지요. 내가 녹음을 6~7개월을 했어요. 은사스님보고 녹음기를 사달라고 해서 송암스님 방에 두고 놓아뒀는데 암만 송암스님 같이 잘하는 대가라도요, 컨디션이 나쁘면 자기 음성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스님 기분 좋을 때에는 막 3시간, 4시간 녹음하는 거여. 스트레스 받아서 얼굴 안 좋으면 이틀이고 사흘이고 좋아질 때 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오래 걸린 거예요.

녹음을 끝내고 떠나기 3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스님의 은혜가 참 지중하고 큰 덕에, 제가 지금까지 소리를 잘 배웠습니다. 이제 선방에 가서

공부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하니, 4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눈앞에 선히요. 그 소리 들으니 노장님이 저쪽으로 고개를 돌려 먼 산을 훑어 보시더라고. 나를 당신



분신으로 생각하고 그런 지극정성을 다 했는데. 그렇게 한참동안 말씀을 못하시다가. 옛날스님이 신지라 법어를 하시는 거야. ‘네가 딴 데 간다면 못 가게 하겠는데 공부하러 간다니 붙잡을 수 없구나! 그러니 가서 공부 잘하고 여기랑 자주 올 생각 하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면 그렇지 원명이가 어디 가서 배겨. 돈 잘 벌고 대접받고 할 텐데, 어디 가서 배겨’ 이 소리를 들으면 자기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러니까 여기 자주 올 생각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나는 그걸 최고의 법문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견성성불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10년 안엔 여기에 안 오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나왔어요. 나와서는 지금 여기 주지하는 사람 만나서 사자암에 데려다 놓았다가, 우리스님이 전라도 내소사에 혜안스님이라고 숨은 선지식이 있으니 거기로 데려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스님께 인사를 갔었어요. “제가 백중해제하면 스님에게 와서 참선을 하고 싶습니다. 행자도 하나 있는데 행자를 데리고 와서 노스님 시봉도 시키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데리고 오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그 훌륭한 스님한테 데려가서 훈습을 하면 일생을 자기 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행자를 데려가서 시봉도 하게 했어요. 지금 이 사람 나이가 59가 됐는데, 17살에 날 만나

서 18살에 거기로 갔으니깐 40년이 넘었네요! 근데 지금도 가만히 보면, 설법하고 하는 걸 보면 혜안스님 행자 때 영향 받은 것이 아주 커요. 하는 것, 말 하는 것 보면 그 때 행자생활을 아주 훌륭한 스님 밑에서 잘 시켰다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해제 철 1달씩 2달씩 사자암에서 쉬는데, 송암스님께서는 쪽 전화를 드렸지요. 해제 철에 두서너 번 씩 안부전화를 하고, 재가 들어와 송암스님이 초청을 하면 저도 가끔씩 뵙곤 했어요.

○ 어장 스님을 뵈러 간다고 하니 많은 학인스님들이 어떻게 하면 염불을 잘할 수 있는지 질문을 부탁했습니다. 예를 들면 목청을 틱우는 방법이나 염불을 잘 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등 등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왕도는 없어요. 내가 소리를 가르쳐 보니깐, 선천적으로 소리를 타고 난 아주 뛰어난 사람은 100명 중에서 2명 있어요. 또 아주 금생에는 소리가 안 되는 사람이 100명 중에서 2,3명 돼요. 나에게 몇 사람이 거쳐 갔는데, ‘미안한 소리지만 스님은 금생에는 소리할 생각 말고 그냥 요령, 목탁으로 하는 불공시식만 하고 소리할 생각은 접는 게 좋겠소. 희망 없는 소리지만 미안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뛰어난 사람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5,6%예요. 나머지 95%는 노력만 하면 다 될 사람들이예요. 근데 노력을 안 하더라도 노력을 안 해. 몇 번 좀 해보고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덮어 놓고 ‘악~’ 하고 소리 지른다고 음성이 좋아지는 것 아니예요. 자기가 배운 소리로 100번이고 200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소리를 내야 목 소리가 좋아지고 다듬어지는 거지, 저 산꼭대기에 가서 “아~~악” 하고 소리를 지른다고 음성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지요.

여기서는 하루 2시간 강의하는데 난 2시간은 고

사하고 30분 이상 배운 소리가 없다니깐요. 그러니 내가 이 방면에는 재주가 있고 소질이 있는 게 맞는가봐. 2시간을 배우면 집에 가서는 5,6시간 이상은 연습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서 1,2시간 뽀뽀거리고 그 이튿날 오거든요. 어저께 한 소리를 한번 해보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튿날 와 보면 어저께 했던 그대로 하는 거예요, 별 진전이 없어요. 들어보면 연습을 1시간 했는지 2,3시간 했는지 딱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깐 2시간 강의를 하면 1시간은 어저께 한 소리를 또 해야 되니, 실질적으로 새로운 소리는 1시간 밖에 못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깐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배우는 사람도 힘들고. 그리고 이 소리는 지금 배우는 소리가 자꾸 조금씩 내 앞으로 배울 소리에 중복되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깐 기초부터 잘 배워서 하면 배울수록 쉬워요. 근데 기초를 시원찮게 하면 배울수록 판소리야. 그러니깐 갈수록 어렵지요. 그러니깐 기초를 철저히 해야 돼요. 상주권공이라고 그것만 철저히 해 놓으면 영산재는 그저 먹기에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않으니.

이건 노력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노력할 때는 덮어 놓고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딱 자기가 배우는 소리를 작게 하지 말고 크게 해야 해요. 작은 소리만 하면 높은 고창은 소리가 안 올라가요. 계속 높은 소리로 반복해서 목이 터야 된다고. 사실 범패는 어려서 배워야 제대로 배워요. 변성기 전후로 배워야 되는데 이걸 30, 40대에 목소리 다 굳어서 하려니 몇 배로 힘들어요. 근데 예전에 노래를 잘 불렀던 사람,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은 음성이 잘 나와요. 노력만 하면 95%는 다 할 수 있단 말이지요! 定慧社

● ● ● 동주 원명 스님은 1961년 대은 대중사를 은사로 수계. 1965년 대교과 수학. 내소사,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대승사 등 제방 선원에서 참선 정진. 2005년 문화재청장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교육조교 2006년 조계종 어장으로 추대. 현재 국내 외 3,000여 회 영산재 및 각배 수록재 및 예수재 등 범주 집전 주관, 흥원사 회주.

한국불교 전통의례 전승원

2012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대한불교조계종 특수교육기관인 한국불교 전통의례 전승원에서 불교의식(전통의례·한글의식)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인을 대상으로 2012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한국불교 전통의례 전승원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의 인가를 받아 대한불교조계종 어산어장 동주 원명스님을 중심으로 전통불교의례를 보존·전승하고 올바른 수륙재의(水陸齋儀)를 재현하여 불교문화의 정체성을 확립, 여법한 불전예식봉행과 재 의식 정립에 기여하고 시대적 요구와 종단 5대 결사에 부흥하여 의식·의례의 한글화 작업 및 재현 연구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학 과 목	상 주 권 공 [학감 정오스님]	할향·등계·삼정례·합장계·개계·헌좌계·참회계·가지계·축원·회향성·시련·대령·관육·신중작법·시식
	불교의식장단 [해일명조스님]	진양조·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휘모리·긋거리·법고·동당쇠·천수바라·사다라니·관육·내림계·화익재·재 의식 공통 반주·무용 공통 반주
	불 교 무 용 [현준스님, 도경스님]	복청계·도량계·요잡·관육·다계·천수바라·향화계·기경·명발·내림계·회심곡
	불교의식연구 [해일명조스님]	천도재·영산재·예수재·수륙재·상단시련·중단시련·하단시련·풍백우사단작법·찬청가람신작법·당산천왕단작법·당산용왕단작법·예적단작법·범왕단작법·제석단작법·사천왕작법·성황단작법
	한글불교의식 [정오스님·해일명조스님]	예불의례·반야심경·발원문·도량석·종성·천수경·시련·대령·관육·신중작법·삼보통청·관음청·지장청·불공·시식
	수 륫 작 법 [학장 동주원명스님, 정오·해일명조스님]	수륙무차평등재·천지명양수륙재·자기문·지반문·예수작법·영산작법
모집인원 및 입학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과정(2년제) 00명 : 대한불교 조계종단의 비구·비구니 • 연구과정(2년제) 00명 : 본학교 전문과정·타학교 불교의식 과정·불교의식 및 문화관련학과 사회대학 졸업자 	
전형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서교부 및 접수 : 2011. 12. 26(월) ~ 2012. 2. 10(목) 17:00, 본교 교학처 (인터넷 교부 및 접수 www.kbtca.or.kr, 전형료 60,000원) • 면 접 : 2012. 2. 13(월) 14:00 (서류전형 합격자) • 합격자 발표 : 2012. 2. 20(월) 14:00 (본교 홈페이지, 개별통지) • 합격자 등록 : 2012. 2. 20(월) ~ 2012. 2. 24(금) 17:00 (납부계좌 : 전통의례전승원) 	
제출서류	입학원서, 성적증명서, 수행이력서, 자기소개서, 이전과정 졸업증명서, 추천서(기본교육과정 학장의 추천서), 불교의식관련 교육기관의 졸업증명서(연구과정 지원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전 : 졸업자에게 대한불교 조계종 3급 승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 연구과정 졸업자는 평가 후 교무회의를 거쳐 어산어장스님이 이수증을 수여하고, 어산법맥을 전수(전강) • 문의 : 본교 교학처 ☎ 02)2658-3200 www.kbtca.or.kr 	

참 좋은 인연

이중표 | 전남대 철학과 교수

어쩌면 우리의 삶은 인연 맺기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하고, 사람 속에서 살려면 사람들과 인연을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만나면 행복하게 되고, 나쁜 인연을 맺으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인연 맺기에 달린 것 같습니다.

저에게 송광사 강원과의 인연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좋은 인연 가운데 하나입니다. 송광사 강원과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1991~1992년 무렵이라고 생각합니다. 1989년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아함의 중도체계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 논문이 1991년 2월에 <아함의 중도체계>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을 때, 그해 여름 곡성의 태안사 조실 청화 큰스님께서 저로 하여금 <아함의 중도체계>로 태안사 선원의 수좌들에게 특강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특강을 송광사의 현장 스님께서 듣고 송광사 강원에게 추천하여, 그해 겨울에 당시에 학감 소임을 보시던 일귀 스님께서 저에게 특강을 청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91년 말이나 1992년 초 겨울에 일주일 간의 특강으로 송광사 강원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벌써 20년 전의 일이 되었습니다.

송광사 강원에서의 특강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 <아함의 중도체계연구>는 기존의 학설을 뒤집는 매우 도전적인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강의했을 때 송광사 강원의 학인들께서 열광적으로 청강하였습니다. 학인 스님들이 매일 밤 제 숙소에서 찾아와서 묻고, 토론하고, 공감하면서 특강을 마쳤습니다. 저는 이 특강을 통해 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송광사 강원에서의 특강을 통해 저는 제 관점을 일관되고 자신 있게 유지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송광사 강원에서의 특강으로 인해 다음 해 여름에 해인사에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통도사에서 특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송광사에서 시작된 <아함의 중도체계>



특강은 소위 삼보사찰로 불리는 사찰의 강원으로 이어졌고, 이후 지리산 쌍계사, 오대산 월정사, 속리산 법주사 등의 강원에서도 저에게 특강을 요청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것을 널리 유포한다는 것, 이것은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송광사 강원은 저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기회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송광사 강원과의 인연은 저에게 참 좋은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인연이 이어져서, 올해는 송광사에서 특강이 아닌 정규과정의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로서는 큰 영광이며, 더없는 행복입니다.

제가 듣기로 교육원에서 강원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강원에서는 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였는데, 송광사 강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변화를 선택하여 받아들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은 날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됩니다. 연기의 진리는 우리에게 이 세상과 함께 소통하며 연기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연기의 진리를 공부하는 강원에서 세상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소외시킨다면 불교의 장래는 밝지 않습니다.

승보 종찰宗刹인 송광사의 강원에서 교육원의 취지를 수용하여 변화를 시도했다는 것은 불행 중 다행입니다. 송광사 강원에서 시도한 변화가 크게 성공해야만 강원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한다면 한국의 강원교육은 다시 답보상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 맺은 송광사 강원과의 인연은 이렇게 저에게 막중한 인연입니다.



저는 송광사 강의를 하는 요즘 참 행복합니다. 학인 스님들께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것을 보면서 불교의 장래가 밝아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단체로 교육받는 생활이란 항상 고달프습니다. 군대에 가서 훈련소에서 교육받을 때, 조교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훈련소 생활은 춥고, 배고프고, 잠이 온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먹어도 금방 배가 고프고, 교육시간에는 잠이 쏟아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강원 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할 것입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빈틈없는 일정에 맞추어 대중이 함께 생활하는 것은 군대의 훈련소 생활보다 더 힘든 수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시간에 졸지 않으려고 애쓰며 열심히 청강하시는 스님들을 보며, 저는 불교의 희망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송광사 강원에서 강의를 하면 행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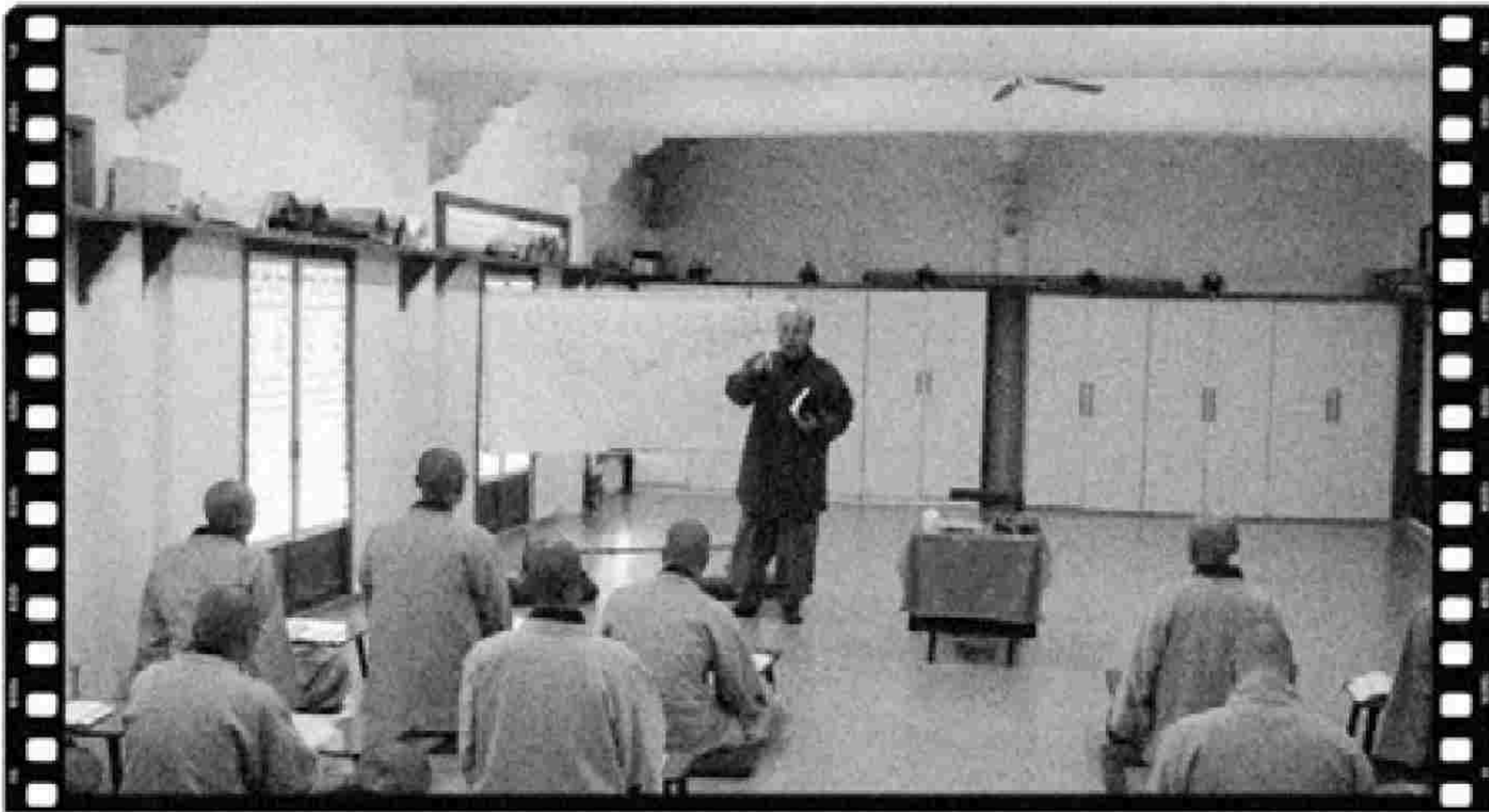
옛 인연을 잇고, 새 인연을 맺어서 불사佛事를 하는 것이 불자佛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년 전에 맺은 옛 인연을 이어서, 올해 송광사 강원의 학인 스님들과 새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연의 힘으로 교육教育 불사佛事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송광사 강원은 저에게 불자佛子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인연입니다.

저는 교육 불사를 통해 맺어진 인연을 이어서 더 큰 불사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불사佛事, 즉 부처님의 일이란 부처님 세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모두가 부처님의 깨달음과 다름이 없는 위없는 깨달음(無上正等正覺)을 성취하여, 자유롭게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이룩하는 것이 모든 불자들의 공통된 서원誓願일 것입니다. 저는 이곳 송광사에서 함께 공부하시는 학인 스님들께서 이 서원으로 하나가 되어 인연을 이어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서원이 성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 인연의 끈을 이루는 한 올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인연, 소중한 인연을 끊임없이 이어서, 부처님 세상을 이루어 그 속에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 소중한 인연, 송광사 강원과의 인연을 맺어주신 분이 학장이신 일귀 스님입니다. 그리고 학감이신 능인 스님께서 이 인연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아마 학장 스님이나 학감 스님과는 숙세에 헤아릴 수 없는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세世世 생생生生 계속해서 이 좋은 인연은 이어질 것입니다.

참 고맙고 좋은 인연입니다. 定慧社

2012. 1. 5.



● ● ● 이중표 교수님은 전남 화순에서 출생하여 전남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동국대학교 석·박사과정을 수료하셨고 현재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계시며 송광사 강원에서 팔리어, 인도 철학사, 근본불교를 강의하십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불교의 이해와 실천], [아함의 중도체계], [근본불교] 등이 있습니다.

마음은 화가

心如工畫師 能畫諸世間 五蘊實從生 無法而不造
마음이 화가와 같아서 모든 세상을 그려내나니
오온이 마음 따라 생기어서 무슨 법이든 짓지 못함이 없도다.

如心佛亦爾 如佛衆生然 應知佛與心 體性皆無盡
마음과 같아 부처도 그러하고 부처와 같아 중생도 그러하니
마땅히 알라, 부처와 마음이 그 체성 모두 다함이 없도다.

若人知心行 普造諸世間 是人則見佛 了佛眞實性
마음이 모든 세간 짓는 줄을 아는 이가 있다면
이 사람 부처를 보아 부처의 참성품 알게 되도다.

心不住於身 身亦不住心 而能作佛事 自在未曾有
마음이 몸에 있지 않고 몸도 마음에 있지 않으나
불사를 능히 지어 자재함이 미증유로다.

若人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
만일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모든 것 오직 마음이 지어냄이로다. 定慧社

〈화엄경 승야마천궁품〉

법거량 정원 | 사집

내가 출가하기 전에는, 일단 내가 출가만 하게 되면 바로 주지스님 같은 아주 높은 스님이 나를 만나러 내려와서 바로 살벌한 법거량을 벌이고, 나에게 잘 왔다며 바로 머리 깎고 중이 되라고 할 줄로 알았다. 그런데 정말로 출가를 해 보니, 절에서 나더러 하룻밤 주무시라고 하더니 다음날 실제로 주지스님을 만나게 해주었다. 기도빨이 완전 먹은 건지 출가하자마자 일이 너무 쉽게 풀려 갔다. (내 기억으론 그 때 주지스님 법명이 원주 였다.)

주지스님이 나더러 제일 먼저 하신 질문이 너는 집이 어디냐 였는데, 내 그 질문 당연히 할 줄 알았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게 출가하기 전부터 평소 선어록도 꾸준히 읽어보고, 어른스님이 무슨 질문을 하실지 예상 질문지도 차근히 만들어, 틈틈이 혼자 큰스님과 법거량을 벌이는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 보며 대답하는 연습을 해보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출가 했을 때 큰 도움이 된다.

동양고전도 미리 조금씩 읽어 놓으면 더 좋다고들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장 출가하고 싶은 마음이 일었을 때는 그냥 예상문제만 충실히 준비해서 인연에 맡긴다는 각오로 출가하는 쪽이 출가의 시절인연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점에서 더 좋을 것 같고, 또 그 정도만 준비 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도 모르고 출가하는 사람들도 수두룩하다. 그리고 평소 기도도 충실히 하고 일체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바른 원력을 세워 출가해야 나처럼 장애가 없다.

그나마 나도 달도 없는 캄캄한 밤에 출가해서 매표소부터 시자행자실까지 걸어가는데 캄캄해 환장하는 줄 알았다. 그래도 나 정도면 준수한 거다. 어떤 도반스님은 출가하려고 절에 들어오면서 매표소에 표 끊어서 들어왔다. 다 불보살님의 가피가 부족해서 그렇고, 복이 부족해서 그런 거고, 그건 결국 바른 원력을 세우지 않았다는 거다. (바른 원력이 세워지지 않고 초발심을 잃어 갈 때는 법당에 가서 부처님 전에 모든 걸 나투고 절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불교를 믿는 이는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이런 인과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아무튼 주지스님께서 내게 집이 어디냐고 물으시는 그 상황에서 나는 아직 주지스님의 살림살이가 파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처음부터 진검승부를 펴다가 카운트 펀치를 받아야 할 상황을 조아리며 내 판에는 사태를 관망할 요량으로 목구멍까지 올라오려고 하는 예상답안을 입에 꼭 삼키고 그냥 서울인데요.... 라고 잘못 말했다



가 바로 주지시자실(원주시자실)로 끌려내려 가서 배추김치를 담았다.

나는 제대로 한 판 벌여보지도 못하고 서류전형에서부터 떨어진 것만 같아 억울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 했는데, 어머니가 나 낳으시고 기쁜 마음에 미역국을 드셨을 텐데, 그런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차갑게 뒤돌아서 출가했는데, 다행히 아이들이 이렇게 서류전형 같은 데서 떨어졌을 줄은 생각도 못하고 계실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니 한없이 죄송하고, 또 그런 나 자신이 한심하게만 느껴져 혼자서 소리 내지 않고 운적도 있었다.

다음날 검은 뿔테 안경을 썼던 간상장 행자가 도망쳐서 그날부터 나는 바로 후원에 투입되어 그 구차하고 기나긴 행자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울면서 12월에 도망치려고 했었는데, 별좌스님한테 잡혔다. 나는 이제 여기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어제 하루 참회 안간 것만 해도 시방삼세 보살님의 가피로 여기며, 내 앞에 스쳐 지나가는 모든 난생, 태생, 습생, 화생, 유색, 무색, 유상, 비유상비무상 등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길 발원하며,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서 쫓만 더 버텨서 사교반이라도 되어 볼까 하는 요량으로 살아가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

출가하고 3년 정도 지나니 인연 따라 많은 스님들을 만나게 되고, 오히려 세상에 유명해진 수많은 스님들보다 내가 그 깊이를 짐작할 수조차 없는 수많은 스님들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꺼려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출가 할 때 가졌던 자신감들은 단순한 오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수행력은 논외로 하더라도 인격 하나만으로도 내가 먼저 머리가 숙여지는 스님들을 보며 존경심과 함께 자괴감으로 자신이 싫어질 때도 있었다.

이제 나는 처음 출가 할 때처럼 패기 넘치는 자신감으로 범거량을 하며 사무라이가 도장 깨기 하듯이 이 절 저절 나다니며 준비했던 연습문제로 큰 스님들을 꺾는 그런 허황된 꿈은 꾸지 않는다. 그저 하루하루 조금씩 나의 잘못된 점을 고쳐 나가다 보면, 언젠가 나도 그 스님들의 깊이를 이해할 날이 오겠지.

그래도 인생은 역시 한 방이다. 단지 그 한 방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과 준비가 필요할 뿐이다. 그 때 내가 출가해서 처음으로 주지스님을 친견한 그 날 스님이 나한테 내 집이 어디냐고 운을 띄우셨을 때 확 그냥 앞뒤 보지 말고 대변에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이것저것 볼 거 없이 그냥,

그럼 니 놈 집은 도대체 어디냐아아아!!!!!!!!!!!!!!

하고 집에서 마누라한테 혼나고 나와 화풀이 하는 이상한 놈처럼 쌍심지 켜고 고함만 한번 쳐 질렀었던 라도, 나는 그 때 바로 머리 깎고 중이 돼서 지금쯤 선방에서 여법하게 정진하는 수좌가 되어 있었을 텐데..... 아 나는 이미 이렇게 되어 버렸지만, 내 뒤를 이어 출가하는 미래의 내 후학들은 나와 같은 실수를 재차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

중은 항상 침착해야 한다. 定慧社

꿈을 바르게 보는 법

원승 | 사집

지난 봄산철 방학 때 '꿈을 바르게 보는 법'에 대한 좋은 법문을 들은 바 있어서 아래와 같이 적습니다. 법문해 주신 스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지 못할까 싶어서 정리하지 않고 들은 그대로 옮깁니다.

〈전략〉

근원적인 꿈 앞에 제대로 된 그런 자세를, 제대로 된 고를 해결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라고 본다면은, 어떤 거가 있냐고 본다면은, 그런 근원적인 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야. 관심을 못 가졌다. 그 '관심을 못 가진 이유가 뭐였을까?' 하고 보면, '나름대로 관심을 가졌는데' 할지는 모르지만은 푸는 데 관심을 쓰는 바람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한 번도 마주하지도 않았어. 쳐다봐주지도 않았어, 그거를. 있는 줄조차, 자기가 못 본줄 조차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 어떻게 까지 표현이 가능하냐 하면은, 고를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 안 볼라고 해. 볼려고 들지를 않아. 본인이 그랬다는 사실을 스스로 그렇게 자인할 수 있을 라면은, 그런 사실을 자기가 인정할 수, 어떻게 하면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측면으로 얘기해 본다면은, 우리는 고만 나타나면은 무조건 해결하려고 한다. 그거가 그거인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 그 마음이 있는 한은, 고 그 자체를 볼려고 하는 마음은 풀려고 하는 그 마음 안에는 고를 본 다라는 거와, 밝음과 어두움, 이거의 관계하고 똑같은 국이 벌어져. 조금이라도 밝으면은 어둠이 끼어들 수 없고, 그지? 어둠 안에 밝음이 있을 수, 서로 이렇게, 내가 고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한은 고 자체를 보려고 하는 이게 어디 기어들 수가, 어떤 생각도 있을 수가 없어. 밝은데 어둠이 거기 어떻게 무슨 수로 끼어들어? 어두운데 밝은 게 끼어들면 밝은 거지 어둠이 아니지? 그런 관계처럼 되어있는 거야. 이런 고가 생기는 원인으로 인해서 벗어나려는 생각으로 꼭차 버리잖아? 그 모드(mode)에서는 고를 본 다라는 거가 어떤 단어도 발견할 수가 없어. 그 마음이 쓰여질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있질 않아. 딱 채워져. 어두운데 밝음은 하나도 받을 못 붙이듯이, 절대 부정으로 들어가잖아. 이런 고가 탁 생기면은, 고는 무조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있으면 안 된다는 거라는 거야. 자기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어. 고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했는가를 자기가 보고, 그거를 봄으로 해서, 비로소 나는 고를 보려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그걸 알아야, 이제는 본다는 말을 행동으로,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거가 보여야, 아 이거 그래서 내가 원천적인 고를 해결하려면은 보는 자세가 나와야 하는데, 일단 보여야 이걸 뭘 할 거 아니야? 병이 보여야 뭐 그 병에 대해 정확한 진단이란 얘기 아니야? 보여야 약을 먹든, 어떤 처방이 제대로 나오듯이, 고를 보지도 않고 그놈의 고를 해결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더라고 그렇게 탁 안다면은, 자기가 볼려고 하는 노력이 털 끝 만큼도 없었다는 사실이 발견 되어져야, 그럼 이제 처음 출발을 해 볼 수 있는 거야. 거기에 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 그게 생겨야 그 다음에 보든지 말든지 하는 일이, 보는 일이 잘됐느냐 못됐느냐 따질 수도 있지, 그 마음도 한 번 먹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그 마음도 없는데 내가 고를 볼려고 하는 일이 성공적이었는지 실패였는지 그거 따지면 이거 무의미하지. 그거 볼려고 하는 마음조차 내지도 않았는데. 그 일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그건 따질 수 없지. 도망가려고 하는 거 하고 보는 거 하고는 거는 다른 거야. **定慧社**

〈후략〉

마음다스리기 혜정 | 사집

무더운 하안거이다. 더욱이 사집반장 소임을 맡았다. 스스로 하겠다고 했지만 왠지 걱정이 된다. 대중의 생각을 잘 파악하고 주어진 강원 일을 무리 없이 처리해야 할 소임이므로 개인적인 자질이 부족하여 걱정을 했다. 그리고 도반들과 관련스님들 간의 협조 없이는 할 수 없는 소임이다. 그래서 갖은 말다툼이 일어났다. 그럴 때 마다 능력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면서도, 도반에 대한 분노도 함께 생긴다.



수행자에게 ‘화’는 독사와 같고 원수와도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나는 왜 자주 화를 내는 것일까’ 하고 고민하게 되었다. 어느 날 한 서점에 가서 우연히 《화를 다스리면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책을 보게 되었다. 절에 돌아와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내가 화를 내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본문에 이런 구절이 있다.

“인간은 언제나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화를 낸다. ‘나는 전적으로 옳다,

나는 완전하다, 상대는 나쁘다, 상대는 틀렸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자주 낸다.”

나의 잘못된 생각, 나만 옳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화를 내는 것 같다. 그래서 자신을 망치고 타인을 힘들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의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다. ‘타인의 생각을 먼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자,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 내 주위의 스님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주자’ 라는 생각을 갖고 강원생활을 하기로 결심했다.

화를 받아준 도반 스님들께 용서를 빌면서... 定慧社

Be happy with the way it is 진담 | 사집

Often we hear about people who wish they are blind so they don't have to see much of what's going on in the world. There are also blind people who wish they can see so they know what they are missing. We see here that both kinds of people have some dissatisfaction about their lives. Everytime this kind of thought emerges, surely there is unhappiness which is what we call suffering—especially not getting what we want.

I think these people are focusing on the wrong thing. They should be focusing on what they have. In doing so, there will be no sense of lacking or dissatisfaction because there is no need to look further other than themselves.

Better yet, if you don't have it, don't worry about it. If you have it, don't get attached to it. In the end you'll just live content.

사람들 중엔, 장님이 되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는 종종 목도한다. 세상에는 또한, 놓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라는 장님들도 있다. 우리는 이러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런 종류의 사고가 일어날 때 마다, 확실히 거기엔 우리가 고통이라고 부르는 - 특히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 불행이 존재한다.



나는 이런 사람들이 잘못된 대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여나 불만족의 감정이 더 이상 자리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봐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더 좋은 것은, 가지지 않은 것이라면 그것에 관해 걱정하지 않는 것이다. 만약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에 집착하지 말라. 마침내 당신은 만족하게 살게 될 것이다. 定慧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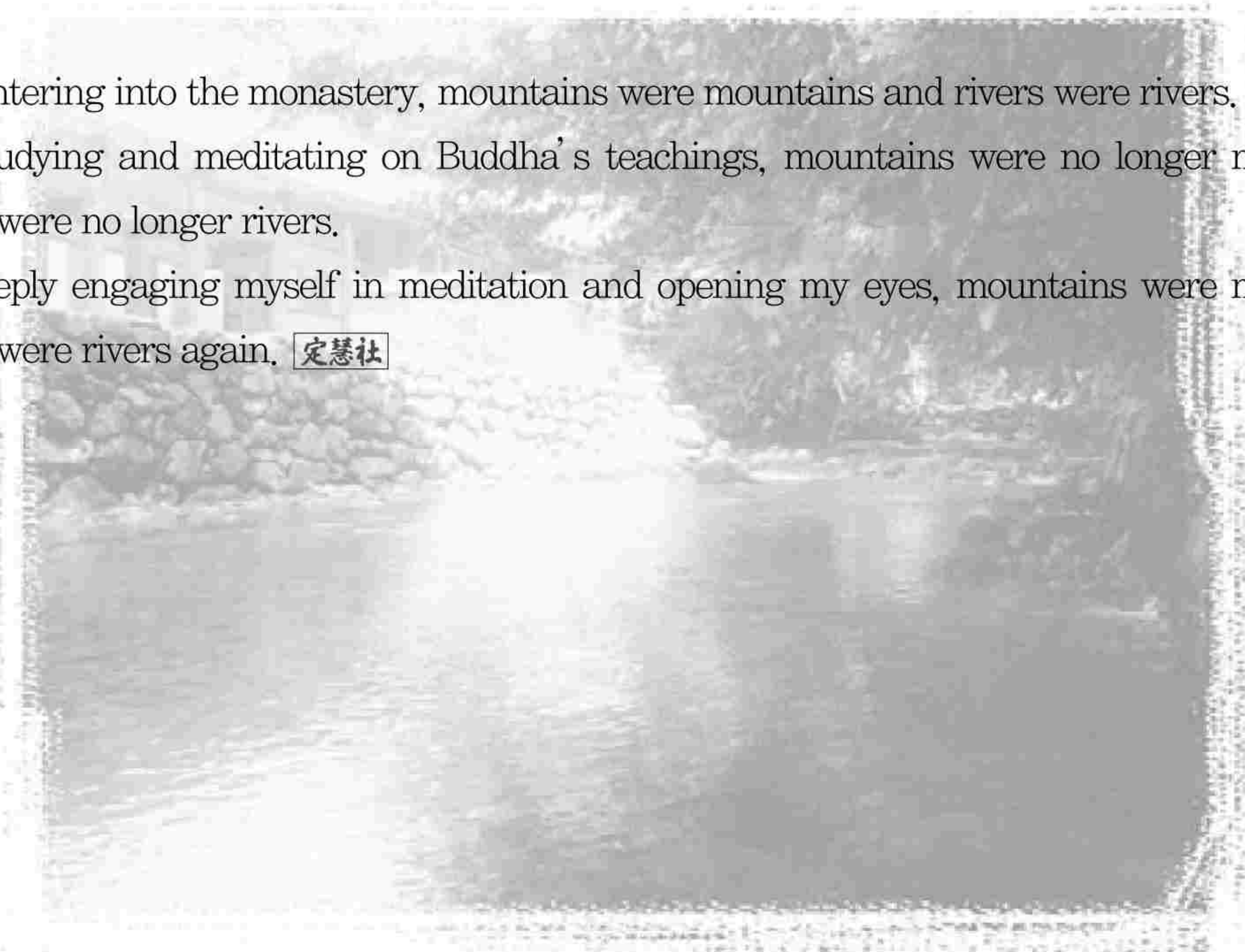
mountains were mountains and rivers were rivers

미산 | 사집

Before entering into the monastery, mountains were mountains and rivers were rivers.

While studying and meditating on Buddha's teachings, mountains were no longer mountains and rivers were no longer rivers.

After deeply engaging myself in meditation and opening my eyes, mountains were mountains and rivers were rivers again. 定慧社



올바른 침묵의 삶 송산 | 치문

행동하기가 어려운 줄 아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에도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생각 없이 한 말에 상처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아픔은 의술로 치유되지만, 말로 받은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욕심과 편견으로 발생하는 감정은, 세치도 안 되는 혀를 움직여 세상을 바꾸는 힘도 있습니다.

책임을 못 지려거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말도 행위가 따르지 않는 말은 알맹이 없는 쪽정이 같은 것입니다. 남에게 할 말이 있거든 자기 자신을 먼저 고쳐야 할 것입니다. 충고와 모욕은 다른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는 말이 상대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 줄 모르는 게 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라면 타인 모르게 그 사람의 부족함을 설명하고 깨닫게 하여 발전한 모습을 보면 충고가 되지만, 좋은 말로 상대의 부족함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봅시다.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말을 아깁시다. 침묵의 아름다움과 공덕은 이미 옛 선사들이 가르친 것입니다. 침묵은 최고의 보배입니다. 힘겨운 세상살이 이지만 이해와 용서, 배려가 있는 올바른 침묵의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定慧社**



한 맛 법종 | 치문



한 방울의 바닷물도, 한 동이의 바닷물도,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바닷가나, 저 깊은 심해의 바닷물 그 어디나 할 것 없이 다 한 맛으로 짭니다.

살아가는 우리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불성이 가득합니다. 다만 저 바닷물을 양으로 구분지어 분별하기를 좋아하듯, 우리네의 불성을 찾아내지 못하고 알아채지 못할 뿐입니다. 저 상불경보 살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그러한데 말입니다.

구분 짓기를 좋아하는 부족한 스스로를 반성하며, 세상 모든 이들이 자성을 바로보아 불국토가 되기를 기도 발원합니다. **定慧社**

Social Responsibility : Reduce, Reuse, and Recycle 진담 | 사집

사회적 책임 : 줄이고, 재사용하고, 재활용하다



Before I expound on this writing, permit me to tell you a story I once read. There was a story from Beopjeong-sunim about two monks who went to a hermitage looking for a scholar monk. When they arrived at the hermitage, they were going to turn back after seeing a lettuce leaf flowing down the river stream because they thought the monk had little regards for the offering given to him. As they were deciding

what to do next, the scholar monk came out from the temple, scooped up the lettuce leaf and went back inside the temple. The two monks abandoned their decision to turn back and ended up studying under the scholar monk.

제가 이 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법정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요, 예전에 스님 두 분께서 교학으로 유명하신 한 스님을 찾아 토굴로 갔습니다. 토굴에 두 분 스님께서 거의 도착했을 때, 상춧잎 하나가 개울에 떠내려 오는 것을 보고, 유명하신 그 스님께서 시주물을 아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실망한 나머지 길을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하던 중, 그 유명한 스님께서 토굴에서 나와 상춧잎을 개울에서 건져가셨습니다. 두 분 스님은 돌아가려던 생각을 버리고, 그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In the same story, Beopjeong-sunim also told the time when an older monk who had to resign from his temple office position because Beopjeong-sunim and other monks used the lamp oil donated to the temple to light up a room so that they could play games all night long. The reason was because the lamp oil was donated to the temple so that the monks can study hard, make progress, and teach people.

그때 또 법정스님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전에 노스님 한분께서 법정스님과 다른 스님들이 등잔불을 밝혀 밤새도록 놀았다고 갑자기 소임자리를 내 놓으신 일이 있었는데, 등잔불은 스님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 정진하여 사람들에게 회향하라고 시주받은 것인데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하셨답니다.

Beopjeong-sunim used this story to illustrate the importance of respecting the offerings made

to the temple. Offerings are important to Buddhist temples, and how we treat the offerings are even more important. However, this writing is not about what we should do about offerings.

법정스님께서서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시주물을 귀하게 생각해야함을 강조하셨고, 그 시주물을 잘 사용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글은 시주물의 사용방법만을 논하고자 쓴 글이 아닙니다.

One important thing that we learn from the Buddha is how everything is interconnected, cause-and-effect. Just take this body of ours as an example. This body will not survive if it does not get nourishment, such as foods, water, and air. To further illustrate this interconnectedness, take the vegetables that we eat for our gongyang as a simple example.

부처님께서 전하신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모든 것이 인과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한 예로 들자면, 이 몸은 음식과 물과 공기와 같은 필수 영양분이 없으면 유지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공양 때 먹는 채소를 예로 들겠습니다.

The vegetables are prepared in the kitchen by haengjas and the cooks. In the preparation process, it requires water, gas, seasonings, and other ingredients. The vegetables and other materials are delivered to the temple by car which requires gas and other things. The vegetables come from a land maintained by farmers who take care of the plants by giving them water and fertilizer.



채소는 행자님과 공양주 보살님들이 준비하십니다.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물과 가스와 양념 등의 갖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채소와 다른 재료들이 절에 배달되려면 석유 등을 쓰는 차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채소를 키우기 위해 농부들이 물과 비료를 사용합니다.

The plants need other organisms, i.e. bugs and bacteria, in the soil, the air, water, and the sun for their growth. When we eat these vegetables, we also need water and bacteria in the stomach to help us digest and absorb the nutrients in the vegetables. Just from this very simple example you can see how we are linked to all these elements. If something happens to one of the factors in the link, all other elements in the chain also get effected.

채소가 자라기 위해서는 박테리아나 곤충, 그리고 공기와 물, 햇볕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그 채소를 소화시키려면 수분과 박테리아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간단한 예로부터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슬의 고리가 하나만 끊어져도 사슬은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Because of this interconnectedness, we need to take care of the elements in the chain. It is our responsibility. Social responsibility here does not only mean our responsibility to just society, but it also means our responsibility to the environment. As Buddhist monks, our responsibility is to save all sentient beings, and they are parts of the chain that helps maintain us.

우리가 이렇게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슬을 이루는 고리 하나 하나를 잘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책임은 우리 인간사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자연환경에 대한 책임도 포함됩니다. 불교 승려로서 우리는 반드시 모든 생명을 제도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또 그 생명들로서 우리의 삶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Two years ago, my eunsa-sunim gave a dharma talk about green buddhist, and he showed an excerpt of “An Inconvenient Truth” movie which raises awareness about climate change and what we can do to prevent this from going further. At the end of the dharma talk, my eunsa-sunim decided as a part of our temple’s efforts to help preserve this earth and contribute to the cure for the climate change problem, paper cups for coffee-mix were no longer available in Sangdo Seonwon. Also, our sindo brings their own travelling cup to drink beverages. This solution was well received by our sindo as well.

2년 전 저의 은사스님께서 환경운동에 관심이 있는 불자들에게 대하여 법문을 하셨는데, 그때 지구의 기후 변화에 대한 문제를 토로하고 이에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에 대해 논한 “불편한 진실”이라는 영화에서 발췌한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법문이 끝날 무렵, 은사스님께서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도 무언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역설하시며, 절에서 더 이상 종이컵을 사용하지 말자고 하셨고, 신도들이 각자 개인 컵을 쓰는 운동을 추진하셨는데, 신도님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This brings us to the second part of the title of this article about what we can do as our social responsibility. There are much that we can do, but let’s start with something simple like 3R’s: reduce, reuse, and recycle. These 3R’s are part of waste management principle in USA, but it extends beyond waste management. In Songgwangsa, we can see some of the efforts that are part of the 3R’s.

자, 위 사례를 기점으로 당장에 어떠한 구체적인 형식으로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수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 간단한 “3R” - Reduce(절약), Reuse(재사용), Recycle(재활용) - 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이 “3R”은 미국의 폐기물 관리정책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꼭 폐기물 관리에만 국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사는 송광사에서 바로 이 “3R”과 연계되는 노력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Reduce means to use less or to buy less. One good example that we already do here is the use of 뒷물 instead of solely using toilet paper in the toilet or turning off lights when we don't use them. Reuse means to give new use to things that we do not need. An example of this is to use hand-me-down clothes instead of buying or making new clothes. Recycle means to convert discarded materials into new materials. Something that we are already doing here is turning feces and dried leaves into compost. There are more ways that we can do that fall within these 3R's. Some more examples include conserve water when taking a shower, use washable cups instead of paper cups, or put several laundry together in the machine instead of doing it separately.



Reduce(절약)은 사용을 줄이거나 구입을 줄이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미 실행하고 있는 좋은 예로 화장지 사용 대신에 뒷물을 하는 것이나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깃불을 끄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Reuse(재사용)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품에 새로운 사용가치를 부가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선배 스님들의 옷을 물려받아 입는 것이 재사용의 일례입니다. Recycle(재활용)은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송광사에서는 이미 분뇨와 낙엽 등으로 농사에 사용할 거름을 만들고 있지요. 이 외에도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 "3R"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샤워할 때 물을 절약한다던가, 종이컵 대신에 재사용 가능한 컵을 사용한다던가, 여럿의 빨랫감을 몰아서 한 번에 같이 세탁기에 돌린다던가 하는 것입니다.

Just as everything that is happening in the world will affect us, what we do here in Songgwangsa will also contribute to the change in the world. As monks we are in a good place to cause changes as people, regardless whether they are Buddhist or non-Buddhist, will scrutinize over our conducts. When we provide good examples, people will surely follow. We may spend our time studying hard so that we can teach people, but when the words end, it is our actions that count.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듯이, 이곳 송광사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 또한 세상의 모든 것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불자이건 아니건 간에 여러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기 때문에, 이 도량은 우리 승려들이 우리의 성향을 좋은 방향으로 바꾸는데 매우 적합한 곳입니다. 우리가 모범을 보이면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이웃을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지만, 말이 닿지 않는 곳에는 행동이 그 가르침을 전달하게 마련입니다. 定慧社



나는 달을 좋아한다. 어릴 적에는 그렇게 좋아했다는 기억은 없다. 그 때는 '전설의 고향'이나 공포영화의 영향으로 '달' 하면 무서운 느낌이 들었다. 귀신이나 늑대 인간 등이 등장하는 그런 공포물 때문이다. 또 중·고등학교 때 명절날 특히 추석에 오래간만에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나 회포를 풀고 밤늦게 헤어질 때, 빨리 집으로 가기 위해 마을길이 아닌 산길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공동묘지를 자주 지나쳐서 지나가면 달빛에 공포를 약간(?)의 오싹함을 느끼곤 했다. 여하튼 자라오면서 달을 좋

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98년 늦은 봄 어느 깊은 밤이었다. 목이 말라 기숙사 라운지에 있는 정수기를 찾았고 물을 마시면서 창가를 바라보다, 보름달이 하늘과 바다 한 가운데 고요히 떠 있는 광경에 왠지 모르게 매료되었다. 1학년 때에는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여유가 없어서 그 광경들을 놓치고 그 때가 되어서야 발견할 수 있었다.

그 후로 보름달이 뜰 때면 바다를 바라보는 일이 많아졌다. 학년이 올라가고 바닷가 쪽 기숙사 방에 배정 받게 되고 또 졸업하여 배를 타면서도 밤하늘과 바다에 떠있는 달은 고요한 밤을 함께 지새우는 친구가 되었다. 어두운 밤, 바다 한가운데에서 육지를 그리워 할 때 물결에 부서지는 달빛은 적막한 내 마음에 편안함을 안겨 주었다. 지금은 산 속에 있어서 바다의 달은 보지 못해 아쉽지만 밤하늘의 달이 내 곁을 지켜주고 있다. 언젠가 다시 달을 바다에서 만나고 싶다.

한 낮의 밝은 태양빛 보다는 어두운 밤 은은하게 세상을 비춰주는 달빛이 좋은 것 같다. 태양의 강렬함이 아닌 달빛 고유의 은은함이, 만물이 활개 치는 한 낮이 아닌 만물이 차분하게 휴식을 즐기는 고요함이 나를 편안하게 만든다. 세속의 번잡함과 화려함보다, 단순함과 고요함이 있는 송광사에서 나는 오늘도 달과 함께 밤을 떠나보낸다. 定慧社

욕망의 삶에서 단순한 삶으로 자윤 | 사집

올 해 초에 온 대한민국을 들끓게 했던 구제역 파동이 있었다.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돼지들이 비명 속에 매몰되었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락사도 시키지 않은 채 산 생명을 구덩이로 몰아넣고 매몰되기도 전에 압사당해서 죽어가는 과정을 전 국민들이 지켜봤다. 살아있는 지옥을 우리는 본 것이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인간들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걸 보면서 나는 '인간들의 욕망의 끝은 어디인가' 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예전에 읽었던 <마음을 다스리는 간디의 건강철학> 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들이 있다.

“대개의 사람들이 미각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음식을 먹을 뿐, 건강을 고려해 먹는 사람은 극소수이다. (여기서는 물론 정신건강을 말한다) <중략> 필요이상으로 먹는 모든 음식은 가난한 사람의 위장에서 흠쳐온 것이다. <중략> 사실상 우리 가운데 가장 우수한 사람들까지도 미각의 노예가 되어있다. 우리는 미각에 맹종하는 것을 죄로 간주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그런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다. 비적 마을에서는 도둑질을 죄로 여기지 않는 법이다. <중략> 창자를 경배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은 분명히 새나 짐승보다 못한 존재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짓말하고 속이고 흠치는 것 같은 모든 죄악이 궁극적으로는 미각의 노예가 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들이다. 요즘 대다수의 방송매체들이 먹는 프로그램 일색인 것을 보아도 간디의 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욕망의 삶을 살고 있다.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인류는 궁극의 행복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며, 필경에는 파국을 맞이하고 말 것이다.

이런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삶을 살아야 한다. 먹는 것과 입는 것이 단순해야 삶이 단순해진다. 그리고 보면 스님들의 삶이야말로 단순한 삶 그 자체이다. 길을 못 찾고 있는 현 시대에 스님들의 삶이 삶의 표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定慧社



후아후아 나무 그늘 아래 원승 | 사집

후아후아 나무들이 높게 자란 다무다무 언덕에 다다랐을 때까지도 모쇼모쇼씨는 아무 말이 없었다. 늦은 봄 햇살이 구겨진 티슈처럼 생긴 구름들을 녹이며 여기저기 떨어졌고, 산들산들 불어오는 바람은 나른하게 다가오는 여름의 온기를 전했다. 모쇼모쇼씨는 이런 것들을 향유하듯 여유롭게 걷고 있었고, 나는 그 서너 걸음 뒤를 걸었다. 후아후아 향기가 느껴질 즈음부터 적당한 단어를 찾는 듯 오른손 구석구석을 살펴 보던 모쇼모쇼씨가 ‘저저저저 었나요?’ 라고 물어본 것은 우리가 후아후아 나무그늘 아래 도착했을 때였다.

“저저저저 었나요? 그 사람 이름이... 이젠 너무 오래전 일이라 모든 게 가물가물하네요.”

“자거자거... 자거자거 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연두색 투명한 잎사귀가 무성한 후아후아 나무들을 올려다보며 내가 대답했다.

“맞아요. 자거자거씨 었어요, 그 사람. 자거자거씨가 여기 다무다무 언덕에 후아후아 나무들을 심었었죠. 맞아요. 자거자거씨 었죠... 저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항상 자거자거씨를 볼 수 있었어요. 자거자거씨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나 이 시간이면 이곳 다무다무 언덕에서 작고 연약한 손으로 어린 후아후아 나무들을 심었었죠. 자거자거씨는 아무하고도 대화하는 일도 없고, 그저 후아후아 나무를 심거나,

후아후아차를 마시며 멍하니 오다오다 마을을 내려다보곤 했어요. 그런 자거자거씨를 우린 모두 바보라고 놀렸었는데, 이제와 이렇게 잘 자란 후아후아 나무들을 보고 있자니, 누가 진짜 바보인지 모르겠네요.”

가까운 후아후아 나무 기둥을 아래위로 쓰다듬으며 이야기하던 모쇼모쇼씨는 주름살만큼 작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멈췄다. 그리고는 다시 오른손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후아후아 나무들 사이 오솔길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문득 흰 바탕에 검은 얼룩인지 검은 바탕에 흰 얼룩인지 모를 고양이 오솔길을 건너갔고, 그 뒤를 새끼 고양이 셋이 따라갔다. 고양이 가족이 모두 후아후아 나무들 사이로 총총히 사라지는 모습을 가만 바라보던 모쇼모쇼씨는 오른손을 그의 다운버튼 트렌치코트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말을 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거자거씨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째서 매일같이 후아후아 나무를 심는 겁니까? 당신은 후아후아 나무에서 후아후아가 열리려면 60년이나 걸리는 것을 아십니까?’ 라고 말이죠. 혹은 자거자거씨의 고향이나 나이 따위를 물어보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어요. 아무튼 그럴 때마다 자거자거씨는 그저 해맑게 웃을 뿐 별다른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말이죠... 그날도 별로 다르지 않았지만, 분명 대답이 있었어요.” “대답이 있었어요?” **定慧社**

경전 한 구절 - 2

한 구절의 계송을 아는 것이 일체를 아는 것

“보살이 임자 없는 꽃이나 향을 볼 때에,
혹은 바람에 날리는 잎새를 보더라도
그것을 부처님께 공양하며
발원하기를 ‘이 선근 공덕으로
일체 중생이 지혜를 갖추어 지이다.’
라고 한다. 이것이 보살이 쓰는 방편이다....
보살은 자기 자신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을) 경멸하지 않고,
계송 하나라도 알게 되면 이렇게 생각한다.”

이 한 구절의 계송을 아는 것이
곧 모든 법을 아는 길이다.
모든 법이 이 계송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도시와 시골로 두루 다니면서
자비심으로 부지런히 법을 설한다.

〈보적경 대승방편품〉

선지식 안경사

진웅 | 사집

그 동안 쓰던 안경이 눈에 잘 안 맞는지 약간 불편함을 느껴 새로 하나 맞추려 안경점을 찾았다. 일단 눈 검사를 하는데 요새 기술이 발전하였는지 하는 검사수가 굉장히 많았다.

그 중에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는데,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있듯이, 눈에도 왼 눈잡이 오른눈잡이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 안경사가 “스님, 혹시 편두통 있지 않으세요?” 하고 묻는 것이었다. 편두통이 가끔 있는 편이어서 “네” 하고 대답하고는 뜬금없이 웬 두통얘기지 하는 생각을 했다.

누구나 두통이 있기 마련이라 속으로 왜 물어봤을까 생각이 깊어졌다. 그런데 “오른쪽이 아마 아프실 거예요” 하는 것이었다. 사실 주로 아팠던 곳은 오른쪽이었다. 너무 신기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왼눈잡이인데 왼쪽 눈이 오른쪽 눈 보다 시력이 나빠서 오른쪽 뇌에 부담이 가니까 오른쪽 편두통이 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가끔 두통이 오면 왜 갑자기 머리가 아플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웬지 해결책을 찾은 듯 했다. 왼쪽 눈 도수를 조금 높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두통이 올 때마다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은 꼴이었다.

나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출가하여 수행한다. 그런데 그 근원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에 빠져서 그 답을 찾으려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두통이 올 때 진통제 한 알 먹고 그 감각을 죽이는 것과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것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사실 내 편두통에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두 눈의 균형이 깨져서 온다는 이 생각에 믿음이 간다. 고통은 조화가 깨졌을 때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눈이든 뭐든 조화를 이루고 있을 때는 고통으로 인지되지 않는다. 우리가 고통으로 인지하는 것은 안정된 상태가 깨어졌을 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돌아갈 때는 참으로 즐겁고 좋다. 하지만 작은 상처 하나에도 그 상태는 쉽게 깨지게 되어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간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으면 그 사람 때문에 괴롭지 않다. 하지만 나의 안정된 상태를 그 사람이 깨트리면 그 사람이 미워지고 나도 괴로워지는 것이다.

고와 낙이 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이 세상은 한 순간도 변하지 않는 것이 없어서 일체가 고라는 얘기도 나온 것 같다. 이 세상에 선지식 아닌 사람이 없는 것 같다. 누구하나 공부하는데 도움 되지 않는 이가 없다. 그 안경사의 말 한마디에 고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다. 定慧社

Bodhisattva Practice (菩薩行)

경본 | 사집

This year as 四集班 students we studied the basics of Mahayana Teachings, included the Diamond Sutra and Vimalakirti Sutra. Though I had heard of these Sutras and read translations of them when studying Buddhism in the US, I could never understand them at any depth. This year, reading these texts in their original Chinese characters and discussing with classmates, the meaning of them emerged to me at some level, and I became very inspired to learn and live the ideal of the Mahayana Bodhisattva.

올 해, 사집반 학인으로서 우리는 『금강경』과 『유마경』을 포함한 대승불교의 기초를 공부했다. 미국에서 불교를 공부할 때, 나는 이 경들에 대해 듣고 번역본들을 읽어보았으나, 한 치도 이해할 수 없었다. 올 해, 이 문헌들을 한문원전으로 읽고 도반들과 논강하면서 그 의미가 나에게 어느 정도 다가왔다. 그래서 대승보살의 사상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마음이 강렬히 일어났다.



Doctrinally, Buddhism defines a Bodhisattva as a sentient being who walks the path of awakening for the benefit of all other sentient beings. Contrary to most living beings, who get by in life simply by following personal desires and karma (業力受生), Bodhisattvas live based on the energy of their vow to awaken and save all other sentient beings (願力受生). Although the vows of Bodhisattvas take many

different forms, the most basic description are the 4 Great Vows(四弘誓願), which we recite daily in the Thousand Hands Sutra(千手經): (衆生無邊誓願度 煩惱無盡誓願斷 法門無量誓願學 佛道無上誓願成). Concretely, Bodhisattvas practice these 4 vows through ending attachment to the “arbitrary illusions of phenomena such as a self, other person, a sentient being, or a liver of life”(離四相) and practicing the 6 Paramitas (六波羅蜜). Bodhisattvas practice endlessly, life over life, not entering nirvana until all sentient beings are freed from suffering.

교리 상으로, 불교는 다른 일체 유정들의 이익을 위해 깨달음의 길을 걷는 유정으로 보살을 정의한다. 단순히 개인적인 욕망과 업력에 따라 생을 받는(業力受生) 대부분의 존재들과 달리, 보살은 깨달음을 구하고 일체 유정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의 힘을 근간으로 살아간다(願力受生). 비록 보살이 취하는 서원에는 여러 다른 양식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종류는 우리가 매일 독송하는 천수경의 사홍서원이다(衆生無邊誓願度 煩惱無盡誓願斷 法門無量誓願學 佛道無上誓願成). 구체적으로, 보살은 '나와 타인, 유정, 생명 지닌 것 등 현상에 대해 임의적인 착각을 갖게 하는 집착을 끝내고(離四相), 육바라밀을 수습함으로써 이 4가지 서원을 수행한다. 보살은 일체 유정이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까지, 열반에 들지 않고 세세생생 끊임없이 수행한다.

The teachings on the Bodhisattva way are so profound and deep; but studying them, I couldn't help but wonder how I could try to practice them in daily life with the lack of wisdom and excess of selfishness that is my present state of practice. Living at Songgwangsa's Monastic College (僧家大學), from day to day I live closely with 13 other classmates (道伴) in 四集班. Together most of the time, we follow the same schedule, eating, studying, and practicing together. If Bodhisattva practice could manifest in this life, it would have to be through thinking about and living for the benefit of those closest to me, which in this present situation means the other monks here. I should try to go beyond my selfishness and narrow views and realize the consequences my actions have on others, and try to make these positive.

보살도의 가르침은 매우 깊고도 깊다. 그러나 가르침들을 공부하면서, 부족한 지혜와 과도한 아상이라는 내 현재의 수행상태로, 어떻게 매일 이 가르침들을 수행할 수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송광사 승가대학에서 지내면서 나는 매일매일 13명의 사집반 도반스님들과 붙어 지낸다. 모여지내는 대부분의 시간에, 우리는 같은 일정, 식사, 수업, 수행을 함께 한다. 이번 생에 보살의 수행을 뚜렷이 하려면, 숙고를 거쳐서, 지금 상황에서 여기 내 주변의 다른 스님들에게 이 로움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아상과 관견을 넘어서 나의 행동이 다른 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내 행동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도록 노력해야 한다.

In the 4th chapter of the Diamond Sutra the Buddha tells Subhuti that Bodhisattvas should practice generosity without any attachments, conditions, or conceptualizations (無住相布施). In Buddhism the practice of generosity can take many forms, but is most commonly understood as generosity of material things, of the Dharma, and of no-fear.

『금강경』의 제4분에, 부처님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말씀하시길, 보살은 집착과 조건, 개념화를 떠나 보시(無住相布施)를 수습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불교에서 보시의 수습은 여러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는 재보시, 법보시, 무외시 등으로 이해되고 있다.

In my daily life it is very apparent that, whether in physical acts such as giving or doing things for others, or through verbal acts such as sharing words of Truth, or mental acts of trying to help others spiritually when they are in difficulties, these acts of donation are beneficial only when done with no attachments to thoughts of “self” and “others”.

타인을 위해 주거나 행하는 신체적 행동과, 진리의 구절들을 공유하는 언어적 행동과,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정신적으로 돕고자 하는 정신적 행동들, 이러한 일련의 베푸는 행위들은, ‘나’와 ‘타인’이라는 사고의 집착이 없을 때만이 도움이 된다는 점이, 내 일상생활 속에서도 매우 명백히 드러났다.

If, for example I cleaned up our class’s 지대방 by myself, which could be called material generosity, but I did so only to look like a “good person” in the eyes of others, this only would add to my egocentricity and attachment to this artificial “I”. If instead I held on to the idea that “I did a good job cleaning, why doesn’t anyone else do any work?” or “Why doesn’t anyone thank me?” then these thoughts too would only be my own delusions, and lead to arguments with others. It is because I believe in and attach to these thoughts that problems and difficulties occur, in my own mind and in inter-personal relations.

예를 들어, 내가 직접 지대방을 청소하였는데(재보시로 간주할 수 있겠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단지 내가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어서 그랬다면, 이것은 가공의 ‘나’에게 자기중심주의와 집착만을 더하는 것이 된다. 만일 그 대신에, “나는 기특하게 청소했는데, 왜 다른 이들은 아무 것도 안하지?” 아니면, “왜 아무도 나한테 고맙다고 안하지?”와 같은 생각을 한다면, 이런 생각들 역시 단지 스스로의 번뇌일 뿐이며, 다른 이와 다툼만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따르고 집착하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에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곤란함과 어려움이 생겨난다.

Though thinking in a self-centered way seems to come too naturally, as a bodhisattva I must see through the illusion of a fixed “I” or “you”, realize the interconnectedness of all things, and then practice generosity, or the other Paramitas from this point. When doing an act like cleaning the room, although I can conceptualize the action as “I am doing something for others”, if I do not hold this thought, and see that “I” and “doing” and “others” are all actually one thing, then this action becomes 無住相布施, and in itself becomes meditation and wisdom. It is taught that this way of being is the foundation for Bodhisattva practice. If instead I cling to those concepts the action is at once 有住相布施, and is a cause of delusion (煩惱) for me and interpersonal problems with my classmates.

비록 자기 본위적인 사고는 매우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살로서의 나는 가공의 ‘나’와 ‘너’라는 환영을 꿰뚫어보아 만유의 상의상관성을 인식하고, 보시와 여타 바라밀을 이 같은 관점으로 수습해야 한다. 방을 청소할 때, 비록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어”라고 행동을 개념화 할 순 있지만, 이런 생각을 붙들지 않으면서 ‘나’와 ‘행위’와 ‘타인’이 실

제로는 하나임을 본다면, 이러한 행위는 무주상보시가 되고, 본질적으로 선정과 지혜가 된다. 이러한 존재방식이 보살의 수행의 근간이라고 가르쳐진다. 그 대신에 내가 만약 앞서 언급한 개념들을 붙들게 되면, 행위는 즉시 유주상보시(有住相布施)가 되고, 이는 내가 겪는 번뇌와, 도반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의 원인이 된다.

In evening chanting each day, as we recite the 千手經 we read the four great vows of Bodhisattvas, chanting out loud that “sentient beings are numberless, we vow to save them” “delusions are inexhaustible, we vow to end them”. Yet, very few are the days, hours or moments when I remember or live by these teachings in my daily life. Though I wish to practice these vows (願力受生), to be honest with myself, because of the force of my past karma and attachment to the 4 appearances (四相), most of the time I live being pulled by desires and conditioning (業力受生).

매일 저녁예불 때, 우리는 천수경을 독송하면서 보살의 사홍서원을 큰소리로 읽는다. “유정들은 한량없지만 그들을 구해내겠습니다.” “번뇌가 끝이 없지만 이것들을 끝내겠습니다.” 아직은, 일상 중에 이 가르침들을 기억하거나 그대로 생활하는 나날이나 시간, 순간들은 정말 드물다. 비록 이 서원들을 수습하고 싶지만(願力受生),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자면, 내 전 생의 업력과 사상(四相)에 대한 집착 때문에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욕망과 조건 짓기에 끌려 지낸다(業力受生).

In studying the sutras of the great tradition of Mahayana Buddhism I continue to be inspired, amazed that in this world of so much foolishness, corruption and falsity there were, and still are, people who live so wisely, so purely and in direct accordance with the Truth. These people were the Buddhas and Bodhisattvas recorded in the Diamond and Vimalakirti Sutras, and are the bodhisattvas that we meet daily in the temple, in villages and cities: Monks or lay-people, Buddhists or non-Buddhists. If I study their teachings and turn in the direction they face, lifetime after lifetime, continuing to take refuge in the three treasures, to engage in practice, and returning to my vows, I will keep going on this path, no matter how many times I veer astray. This might even be the first step on the path of Bodhisattva practice after all.

대승불교의 훌륭한 전통경전들을 배우면서, 이렇게나 많은 어리석음과 부패와 기만이 있어왔고 여전히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지혜롭게, 맑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는 계속 영감을 얻고 놀라게 되었다. 스님이든 신자든 불자든 비불자든 간에, 이 사람들이야말로 『금강경』과 『유마경』에 기록된 부처와 보살들이었으며, 우리가 절에서, 동네에서, 도시에서 매일 만나는 보살들이다. 그들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들이 향하는 곳으로 방향을 돌려, 세세생생 삼보에 끊임없이 귀의하고, 수행을 서약하며, 나의 서원으로 되돌아가, 내가 이 길을 계속 갈 수만 있다면, 몇 번을 길 잃고 헤매어도 상관없다. 그것조차 결국에는 보살의 수행 길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定慧社

병원에서 화염경의 요지를 설하다!

일각 | 사고

지난 가을 산철 결제중의 일이다. 강원에 병가를 내고 부산의 한 병원에서 비염수술을 하게 되었다. 오랜 비염으로 양쪽 코 안이 좁아져 있었고 수술로 넓혀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다.

코만 마취하고서 30분 정도면 끝낼 수 있는 그다지 힘들지 않은 수술이었다. 그러나 업장이 있어서 였을까. 수술이 끝나고 하루가 지나도 코 안에 지혈이 되지 않아 결국 지혈장비가 잘 갖춰진 큰 병원(부산 침례병원)으로 옮겨 재수술을 하게 되었다. 나는 바퀴달린 침대에 누워 의사들에 의해 수술실까지 이동했다.

또 다시 시작된 수술.

이미 수술한 부위를 식염수로 계속 씻어내고 썩션(흡입)하는 과정이 가장 시리고 아팠다. 30여 분간의 수술이 끝나고, 나는 지친상태로 다시 그 바퀴달린 침대에 누워 누군가에 의해 수술실을 빠져 나오고 있었다. 잠시 대기하는지 멈춰서 있는데 곧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까 수술실에서 보조하던 남자 의사였던 모양이다. 그 사람이 누워있는 내게 말했다.

“저기, 스님이신 거 같은데 뭐하나 물어볼게 있는데요. 사실 제가 요즘에 좀 심란하거든요. 가슴에 와 닿는 한마디만 해주세요.” 지쳐 눈감고 누워있는 내게 물은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망설임 없이 바로 대답했다.

“화염경에...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는데요...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란 뜻입니다.”

내 목소리는 마치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노인의 그것과 같았다.

시간이 짧았기에 그 사람은 “예...”하고는 나를 병실로 데려다 주었다.

다음날 오전, 회진시간. 키 크고 안경 낀 한 남자의사가 씨익 웃으며 아는 척을 했다.

“일체유심조, 어제 그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마음먹기 달렸다 뭐 그런 뜻인 거죠?”

나는 반가웠다. 그리고 대답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꼭 거기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그 말은 큰 보물과 같아서 사람들이 자기 그릇 따라 필요한 만큼 얻어갈 수 있거든요. 공부하는 스님들은 그것으로 깨달기도 하고 마음에 근심 걱정 있는 사람에겐 그것을 해결해주는 약이 되거든요. 보물이니깐 잘 간직하세요.”

그 사람은 진지하게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곤 돌아갔다.

내가 한 대답에는 비록 내가 사무치게 깨달은 바는 아니었지만 한 점의 의심도 없었다.

지어내지 않았고, 꾸미지도 않았고 망설임도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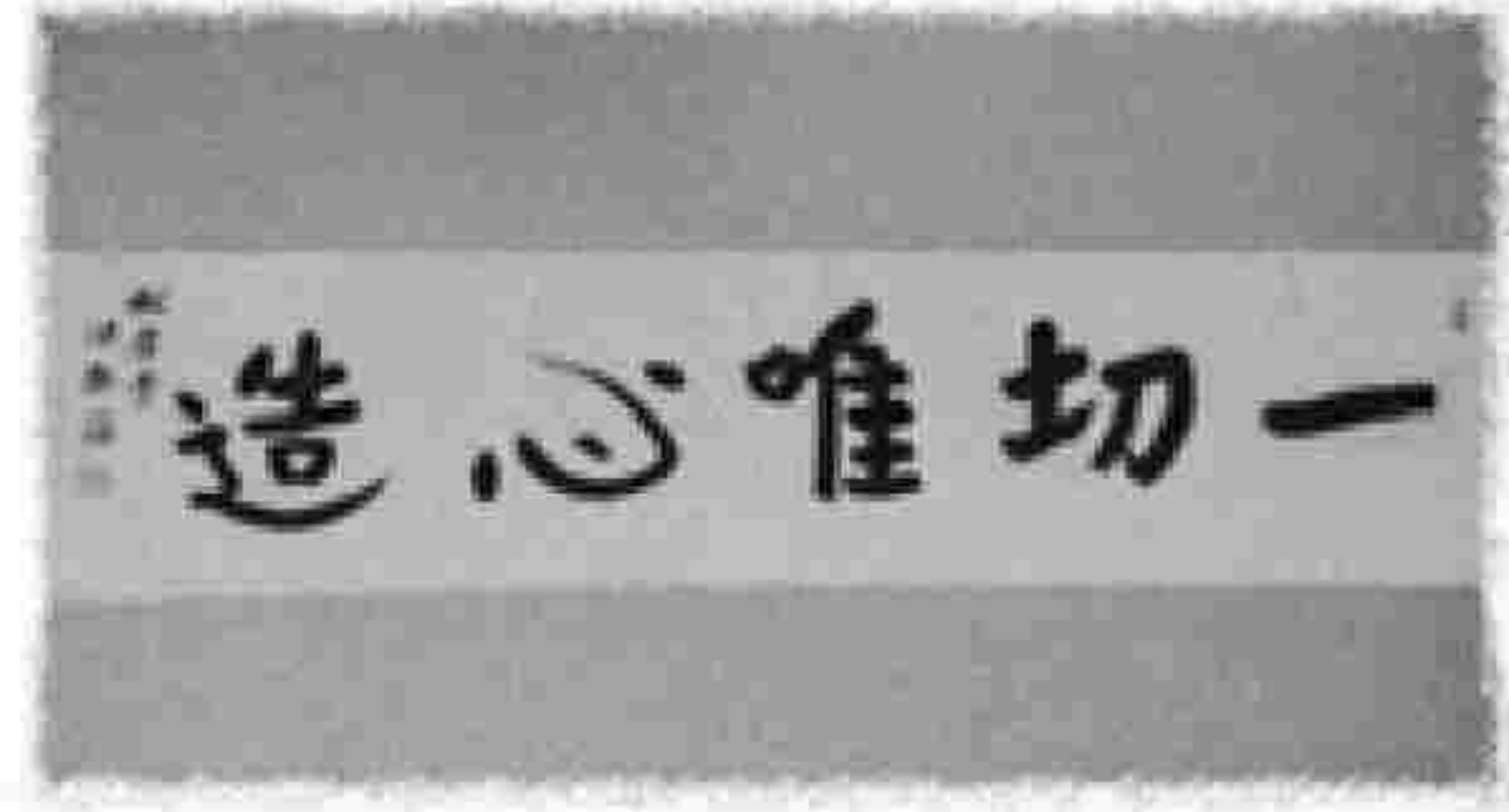
나중에 은사스님께 이 일을 말씀드렸더니, 스님께선 내가 그 와중에도 공부의 끈을 놓지 않았고 또 평소 고민해왔던 바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그러한 대답을 한 것이지 않겠냐고 말씀하셨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 좀 더 갖추어 말하자면 아래와 같다.

약인욕요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若認欲了知 三世一切佛 應觀法界性 一切唯心造)

삼세제불의 요지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관하라. 일체가 마음이 지어낸 바이다.



이 사구계는 화엄경의 요지로 잘 알려져 있다. 요즈음 수업시간에 금강경을 보는데, 내용 중에 경전 또는 사구계의 수지 독송에 대한 공덕찬이 많이 나온다. 내용인 즉, 아무리 많은 재물이나 몸을 바쳐 보시한대도 경전 또는 사구계를 수지 독송한 공덕에 견줄 수 없다는 것이다.

나는 덧붙여 이렇게 말하고 싶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잘 간직하여, 적시 적소에 쓰일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삼아,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기를, 두 손 모아 지극정성 기도합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定慧社**



「정혜사」 후원자를 모십니다

「정혜사」는 송광사 강원의 소식지입니다.

기획, 원고작성, 사진촬영, 편집에서 출판 및 발송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작업을 학인스님들의 손으로 만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사」는 비영리출판물로서 발간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보시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정혜사」는 더욱더 여법하고 순수한 모습을 지켜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정혜사」誌를 후원해 주실 분은 아래의 후원안내를 참조하시고 편집실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 500660-01-001029 예금주(송광사 정혜사)

후원안내 : 송광사 강원 편집실 061)755-5302

산사의 소리 명적 | 사집

귀 기울여 들리는 소리를 음미해본다.
냇가에 졸졸졸 흐르는 맑은 물소리
무더운 여름을 식혀주는 시원한 바람 불어오는 소리
깊은 산 속 짹짹 새 지저귀는 소리

기도 명적 | 사집

두 손 모아 합장하고 기도합니다.
미혹한 이들을 위하여
나무 대지 문수사리보살 마하살

두 손 모아 합장하고 기도합니다.
아픈 이들을 위하여
나무 약사유리광 여래불

두 손 모아 합장하고 기도합니다.
고난 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나무 구고구난 관세음보살 마하살

두 손 모아 합장하고 기도합니다.
지옥 중생들을 위하여
나무 대원본존 지장보살 마하살

우화각 행원 | 사집

겨울바람이 내려오는 길목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화상을 보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는 이곳에 앉아 내일을 봅니다.
어제는 우리가 짊어지고 온 꿈
오늘은 내일을 여는 희망
우리는 이 곳 우화각(羽化閣)에서 삶의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다시 이곳에서
生活의 번뇌와 고뇌를 던지고
인생여정의 희망지기로 다시 걸어갑니다.
마하반야바라밀...

죽비소리 여공 | 치문

새벽 단잠 깨우는 알미운 소리
발우 공양 알리는 반가운 소리
단체 참회 땀 무서운 소리
죽비 소리 如如하나
나만 분별하네.

無 여공 | 치문

어디에서 왔을까?
어떤 نوم일까?
정말 궁금하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해야 할 소임이 더 급하다.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송산 | 치문

사랑하는 이의 무관심에 다친 마음 펴지지 않을 때
섭섭한 마음 버리고 이 말을 생각해보라.
두 번이나 세 번, 아니 그 이상으로 몇 번쯤
더 그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려보라.
실제로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지금 사랑에 빠져있거나 설령 심지 굳은 누군가와
함께 있더라도 다 허상일 뿐 완전한 반려는 없다.
겨울을 뚫고 핀 개나리의 샛노랑이 우리의 눈길을 끌듯
한 때의 초록이 들관을 물들이듯, 그렇듯 순간일 뿐...
청춘이 영원하지 않은 것처럼 그 무엇도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란 없다.



함께 한다는 건 이해한다는 말
그러나 누가 나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가.

얼마나 쓸쓸하거나 아니면 서러운 마음이
짠 소금물처럼 내밀한 가슴속살을 저며 놓는다 해도 수궁해야 할 일
어차피 수궁할 수밖에 없는 일
상투적으로 말해 삶이란 그런 것
인생이란 다 그런 것
누구나 혼자이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러나 혼자가 주는 텅 빈
텅 빈 것의 그 가득한 여운. 그것을 사랑하라.
송송 구멍 뚫린 천장을 통해 바라보는 밤하늘 같은
투명한 슬픔 같은, 온 몸에 바람소릴 챙겨두고 떠나라.

그냥이라는 말 송산 | 치문

그냥이라는 말

참 좋아요

별 변화 없이 그 모양 그대로라는 뜻

마음만으로 사랑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난처할 때

그냥 했어요! 라고 하면 다 포함하는 말

사람으로 치면

변명하지 않고 허풍 떨지 않아도 그냥 통하는 사람

그냥이라는 말이 참 좋아요

자유다 속박이다 경계를 지우는 말

그냥 살아요 그냥 좋아요

산에 그냥 오르듯이

물이 그냥 흐르듯이

그냥이라는 말 그냥 좋아요

- 조 동 례 -

그냥이라는 말

그냥 보고 싶은 사람. 그냥 그리운 사람. 그냥 좋은 사람.

그냥 이라는 단어가 이런 어울림과 여운을 줍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우리 정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단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정서는 우리 민족이 아니면 표현하기도 이해하기도 쉽지 않겠지요.

법정스님께서서는 우리말 우리글의 아름다움 때문에

다시 태어난다면 이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하셨지요.

그 무한한 아름다움을 언제나 맛보며 짐작이나 할런지 모르지만

그냥 좋습니다. 우리말 우리글이 그냥 좋습니다.

오늘 하루 근념하셨습니다 법등 | 사미

새벽 3시, 큰 방을 울리는 죽비소리
일제히 일어나서 새벽을 뒤흔든다.
졸린 눈 비비면서 간단히 세면한 뒤
어둠을 헤치고 법당으로 향한다.

매섭게 공격하는 수마를 이겨내며
묵묵히 절하는 것도 한 순간
종소리가 울리며 침묵이 흐른다.
이어지는 염불과 장엄한 금강경 독송

대중들이 모두 모인 아침공양 시간에는
칠바라밀 들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우렁찬 상강례로 오늘수업 생각하고
강사스님 열정으로 배움은 늘어간다.

화려한 만의장삼 단정하게 차려입고
시주은혜 생각하며 심경을 독송한다.
만의장삼 탈의하며 맞이하는 자유 시간
책 읽을까 휴식할까 행복한 고민이다.

몸을 위해 챙겨먹는 단출한 저녁공양
웅장한 천수경이 조계산을 울린다.
이어지는 자율학습 배운 것을 복습하고
피로한 몸을 위해 체조를 시작한다.

큰 방 대중 모두 모여 엄숙한 저녁공사
지친 하루 반성하고 힘찬 내일 생각한다.
자리에 누우면서 스스로 되뇌는 말
법등스님! 오늘 하루 근념하셨습니다.

五觀偈(오관계)의 의미



計功多少 量彼來處

이 공양이 여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와 땀의 고통이 배어있는가를 헤아리고,

여기서 관상해야 할 대상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음식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많은 사람의 피땀이 서린 노고와 시주(施主)의 은덕(恩德)을 관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의 음식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생명이 살상되어 음식이 이루어짐을 관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의 노고, 시주의 은덕과 음식을 위한 생명에 대한 은혜를 말한다. 하나의 음식이 이루어지기까지의 많은 사람과 생명에 대한 은혜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음식의 고마움은 곧 많은 사람의 노고와 시주의 은덕,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관상하게 하는 것이다.

忖己德行 全缺應供

자기의 덕행이 공양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는가를 생각한다.

자기 자신이 과연 음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관상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음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음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결여와 은혜에 대한 결여를 뜻한다. 이러한 결여는 탐진치의 마음이며, 모든 존재를 분리시켜 보는 무지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이러한 탐진치를 없애는 수행을 바로 덕행이라 하며 음식을 받을 수 있는 덕행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음식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 된다. 따라서 자신의 덕행을 관상하여 늘 부끄러운 마음을 지닐 때 뻘뻘스러운 마음이 사라지고 음식에 대한 은혜가 되살아나게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덕행을 관상하는 것이다.

防心離過 貪等爲宗

마음을 악으로부터 보호하고 허물을 여의는 것은 탐·진·치 삼독(貪·瞋·癡 三毒)을 버리는 것이 으뜸이니,

이는 탐·진·치(貪·瞋·痴)를 관상하여야함을 말한다. 왜냐하면 탐욕을 버린다는 것은 계(戒)를 지키고 보시(布施)하는 것을 말하며 성냄을 버린다는 것은 선정(禪定)을 말하고 어리석음을 버린다는 것은 혜(慧)를 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탐·진·치를 버림으로써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음식을 먹는 것은 바로 계·정·혜 삼학(戒·定·慧 三學)을 통해 탐·진·치를 없애기 위함이며, 따라서 음식을 받는 이유를 관상하는 것이다.

正思良藥 爲療形枯

이 음식을 약으로 알아 육신의 고달픔을 치료하여,

이 계송은 음식을 육신을 지탱시키는 훌륭한 약에 비유한 것으로 육신이 망가지면 수행할 수가 없음을 들어 육신을 지탱하는 약으로 관상하라는 것이다.

爲成道業 應受此食

道業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음식을 먹는 최종 목적은 도업(道業)을 이루고자 음식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업이란 무엇인가 혜명(慧命)을 잇고 불도(佛道)를 이루기 위해 수행(修行)함을 말한다. 즉 음식을 받는 것은 '위없는 부처의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수행을 뜻한다. 음식을 받는 것은 수행하기 위함이고, 수행의 구경은 깨달음인 것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깨치기 위해 음식을 받는 것이며 이것을 관상하는 것이 다섯 번째의 관상이다.

ཡོན་ཏན་གཞིར་གྱུར་མ་བཞུགས་སོ།།

공덕의 근원

종카파 著, 시륜 譯 | 치문

༄༅། ཡོན་ཏན་གྱི་གཞིར་གྱུར་ཏེ་ཅན་ཟེ།

ཚུལ་བཞིན་བསྟེན་པ་ལམ་གྱི་ཚུལ་བ་ཏུ།

ལེགས་པར་མཚོང་ནས་འབད་པ་ཏུ་མ་ཡིས།

གུས་པ་ཚེན་པོས་བསྟེན་པར་བྱིན་གྱིས་རྫོབས།

일체 공덕의 근원되는 고마운 스승
이치에 따라 의지함은 도의 뿌리로
바르게 보아, 많고 많은 노력으로서
큰 공경으로 의지토록 가피 하소서

ལེན་ཅིག་རྟེན་པའི་དལ་བའི་རྟེན་བཟང་འདི།

ཤིན་ཏུ་རྟེན་དཀའ་དོན་ཚེན་ཤེས་གྱུར་ནས།

ཉིན་མཚན་གྱུར་ཏུ་སྟོང་པོ་ལེན་པའི་གྲོ།

རྒྱན་ཚད་མེད་པར་སྐྱེ་བར་བྱིན་གྱིས་རྫོབས།

한번 얻어진 여유로운 인간의 몸은
정말로 얻기 어려움을 알게 하셔서
밤과 낮으로 항상 의미 얻으려는 뜻
끊어짐 없이 상속토록 가피 하소서

ལུས་ཚོག་གཡོ་བ་རྒྱ་མི་རྒྱ་ལྷུར་བཞིན།

སྐྱུར་ཏུ་འཇིག་པས་འཆི་བ་ཏུན་པ་དང་།

ཤེ་བའི་རྗེས་སུ་ལུས་དང་གྲིབ་མ་བཞིན།

དཀར་ནག་ལས་འབྲས་བུ་བཞིན་འབྲང་བ་ལ།

몸과 목숨은 요동치는 물거품 같이
순간이기에, 죽음의 일 기억케 하고
죽은 후에는 몸 따르는 그림자처럼
선하고 악한 과보 역시 뒤를 따름을

ངེས་པ་བཏན་པོ་རྟེན་ནས་ཉེས་པའི་ཚོགས།

ཐ་ཞིང་ཐ་བ་རྣམས་ཀྱང་ཐོང་བ་དང་།

དགེ་ཚོགས་མཐའ་དག་ལྷུབ་པར་བྱེད་པ་ལ།

རྟག་ཏུ་བག་དང་ཐུན་པར་བྱིན་གྱིས་རྫོབས།

흔들림 없이 확신하여 작고도 작은
허물들조차 남김없이 끊어버리고
일체 선근들 한량없이 성취 하도록
항상 성실함 지니도록 가피 하소서

རྒྱན་པས་མི་ངོམས་སྐྱག་བཟུལ་གྱུར་གྱི་གྲོ།

ཡིད་བཏན་མི་ཏུང་གིད་པའི་ལུན་ཚོགས་གྱི།

ཉེས་དམིགས་རིག་ནས་ཐར་པའི་བདེ་བ་ལ།

དོན་གཉེར་ཚེན་པོར་བྱེད་པར་བྱིན་གྱིས་རྫོབས།

만족 모르고 일체 고통 불러들이며
결코 뜻대로 되지 않는 세간의 영화
그 허물 알아 해탈열반 즐거움 향해
크나큰 노력 지니도록 가피 하소서

རྣམ་དག་བསམ་པ་དེ་ཞེས་ཏུངས་པ་ཞི།

ཏུན་དང་ཤེས་བཞིན་བག་ཡིད་ཚེན་པོ་ཞེས།

བཟུན་པའི་རྩ་བ་མོ་མོར་ཐར་བ་ལ།

རྒྱབ་པ་སྟོང་པོར་བྱེད་པར་བྱིན་གྱིས་རྫོབས།

바르고 착한 사유로서 일으키게 된
정념과 정지(正知) 그리고 큰 성실함으로
부처님 법의 뿌리 되는 별해탈계를
가장 중요히 여기도록 가피 하소서

● ● ● 종카파(1357~1419) : 티벳 북부 암도 지역 출생. 이 지역의 종카 부락에서 태어났다고 하며, 그 이름을 따서 종카파 라고 불린다. 법명은 롱상다빠 이며, 겔룩파의 시조로서 티벳 내의 불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공헌을 하였다. 제자로서 갈잡 다르 마 린첸, 케둑 겔렉 뻬상, 겐뉰 뉘(제 1대 달라이라마) 등이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보리도차제론』, 『비밀도차제론』 등이 있다.

རང་ཉིད་མཚོར་ལྷུང་བ་ཇི་བཞིན་དུ།
 མར་གྱུར་འགོ་བ་ཀུན་ཀྱང་དེ་འདྲ་བར།
 མཚོང་ནས་འགོ་བ་སྒྲིལ་བའི་ལྷུང་བྱེད་བའི།
 བྱང་རྒྱལ་སེམས་མཚོག་འཕྱོངས་པར་བྱིན་གྱིས་རྫོབས།

내가 지금에 윤회 바다 빠진 것처럼
 어머니 같은 일체유정 모두 이같이
 가없이 보아 중생구제 짐을 떠메는
 보리의 마음 성숙토록 가피 하소서

སེམས་ཙམ་བསྐྱེད་ཀྱང་རྒྱལ་བྱིམས་རྣམ་གསུམ་ལ།
 གོམས་པ་མེད་ན་བྱང་རྒྱལ་མི་འགྲུབ་པར།
 ལེགས་པར་མཚོང་ནས་རྒྱལ་གྲས་ལྗོངས་པ་ལ།

བརྩོན་པ་དྲག་པོས་རྫོབ་པར་བྱིན་གྱིས་རྫོབས།
 보리심 겨우 일으켜도 삼취정계를
 익힘 없이는 정각 역시 성취 못함을
 바르게 보아, 보살들의 청정계율을
 큰 정진으로 배우도록 가피 하소서

ལྷག་པའི་ལྷུང་ལ་གཡེང་བ་ཞི་བྱེད་ཅིང་།
 ཡང་དག་དོན་ལ་རྒྱལ་བཞིན་དཔྱོད་པ་ཡིས།
 ཞི་གནས་ལྷག་མཚོང་བྱང་དུ་འབྱེལ་བའི་ལམ།
 ལྷུང་དུ་རྒྱུད་ལ་སྐྱེ་བར་བྱིན་གྱིས་རྫོབས།
 그릇된 대상 향한 마음 쉬게끔 하고
 바른 의미를 이치대로 관함으로써
 선정과 지혜 결합하는 지관쌍운을
 속히 일으켜 지니도록 가피 하소서

ལུན་མོང་ལམ་བྱུངས་རྫོང་དུ་གྱུར་བ་ན།
 ཐེག་པ་ཀུན་གྱི་མཚོག་གྱུར་རྗེ་ཇེ་ཐེག
 ལྷུང་བཟང་སྐྱེ་བའི་འཇུག་རྒྱལ་དམ་པ་དེར།
 བདེ་སྐྱབ་ཉིད་དུ་འཇུག་པར་བྱིན་གྱིས་རྫོབས།
 공통된 길을 배워 익혀 그릇이 되면
 모든 수레 중 으뜸 되는 금강승의 법
 선근 지닌 자 들어가는 그 가르침에
 어려움 없이 들 수 있게 가피 하소서

དེ་ཙོ་དངོས་གྲུབ་རྣམ་གཉིས་འགྲུབ་པའི་གཞི།
 རྣམ་དག་དམ་ཚིག་ལྗོངས་པ་བསྐྱང་བ་ལ།
 བཅོས་མ་མེན་པའི་ངེས་པ་རྙེད་གྱུར་ནས།
 རྫོག་དང་བརྩོས་ཏེ་བསྐྱང་བར་བྱིན་གྱིས་རྫོབས།

두 가지 성취 이뤄주는 근간이 되는
 수많은 서약 삼매야를 지키는 것에
 꾸며냄 없는 바른 확신 획득하여서
 목숨 바쳐서 지키도록 가피 하소서

དེ་ནས་རྒྱུད་ཐེའི་སྐྱེང་པོ་རིམ་གཉིས་ཀྱི།
 གནད་རྣམས་ཇི་བཞིན་རྟོགས་ནས་བརྩོན་པ་ཡིས།
 ལུན་བཞི་རྣལ་འབྱོར་རྫོང་ལས་མི་གཡེལ་བར།

དམ་པའི་གསུང་བཞིན་རྒྱལ་བར་བྱིན་གྱིས་རྫོབས།
 밀부(密部)의 핵심 두 가지의 수행차제들
 그 요점대로 이해하여 정진으로써
 하루 네 때의 유가수행 어김이 없이
 불설 그대로 성취토록 가피 하소서

དེ་ལྟར་ལམ་བཟང་སྐྱོན་པའི་བཤེས་གཉེན་དང་།
 རྒྱལ་བཞིན་རྒྱལ་བའི་ཤོགས་རྣམས་ལབས་བརྟན་ཅིང་།
 བྱེད་དང་ནང་གི་བར་དུ་གཙོན་པའི་ཚྷགས།
 ཉེ་བར་ཞི་བར་བྱིན་གྱིས་བརྒྱལ་དུ་གསོལ།
 이런 바른 길 보여주신 선지식들과
 가르침대로 수행하는 도반들 모두
 오래 머물며, 안과 밖의 장애무더기
 남김이 없이 다하도록 가피 하소서

སྐྱེ་བ་ཀུན་དུ་ཡང་དག་མ་མ་དང་།
 འབྲུལ་མེད་ཚོས་ཀྱི་དཔལ་ལ་ལོངས་རྫོང་ཅིང་།
 ས་དང་ལམ་གྱི་ཡོན་ཏན་རབ་རྫོགས་ནས།
 རྗེ་ཇེ་འཆང་གི་གོ་འཕང་ལྷུང་ཐོབ་ཤོག།
 모든 생애에 걸치도록 바른 스승과
 헤어짐 없이, 법의 이익 두루 누리고
 십지, 오도의 공덕 모두 원만히 하여
 지금 강불의 경지 속히 이뤄 지이다

The Compassion of Mahakasspa

가섭존자의 자비행

경본 | 사집

Thus have I heard. On one occasion the Blessed One was dwelling at Rajagaha in the Bamboo Grove, the Squirrel Sanctuary. Then the Venerable Mahakassapa approached the Blessed One and paid homage to him... (Kassapa said): “For a long time, venerable sir, I have been a forest dweller and have spoken in praise of forest dwelling; I have been an almsfood eater and have spoken in praise of eating almsfood; I have been a rag-robe wearer and have spoken in praise of wearing rag-robles;...I have been of few wishes and spoken in praise of fewness of wishes; I have been content and have spoken in praise of contentment; I have been secluded and have spoken in praise of solitude; I have been energetic and spoken in praise of arousing energy”.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 왕사성에 있는 죽림정사에 계셨다. 그때 존자 마하가섭이 세존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와서 세존께 인사를 드리고... (가섭존자의 말씀): “세존이시어, 저는 오랫동안 숲에서 사는 자로서 숲의 생활을 찬탄하고, 저는 걸식하는 자로서 걸식의 생활을 찬탄하며, 저는 분소의를 걸친 자로서 분소의를 입는 것을 찬탄하며, 저는 소망이 적은 자로서 소망이 적은 것을 찬탄하며, 저는 만족할 줄 아는 자로서 만족할 줄 앎을 찬탄하며, 저는 홀로 있는 자로서 홀로 있는 것을 찬탄하며, 저는 용맹하게 정진하는 자로서 용맹하게 정진하는 것을 찬탄해왔습니다.”



“Considering what benefit, Kassapa, have you long been a forest dweller... and spoken in praise of arousing energy?”

“Considering two benefits, venerable sir. For myself I see a pleasant dwelling in this very life, and I have compassion for later generations, thinking : May those of later generations follow my example! For when they hear ‘The enlightened disciples of the Buddha were for a long time forest dwellers... and spoke in praise of arousing energy’, then they well practice accordingly and that will lead to their welfare and happiness for a long time”.

“Good, good, Kassapa! You are practicing for the

welfare and happiness of the multitude, out of compassion for the world, for the good, welfare and happiness of devas and humans.” (Samyutta Nikkaya, II,16.)

“가섭이여, 무슨 이익으로 그대는 오랜 세월동안 숲에서 사는 자로서... 용맹하게 정진하는 것을 찬탄하는가?”

“세존이시여, 두 가지 이익 때문입니다. 금생의 행복한 삶을 보아 저 스스로를 위해서 그리고 후세의 사람들을 위한 자비심을 지닌 연유에서입니다. 생각하길 ‘후세의 사람들은 나의 전례를 따를 것이다.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제자들은 오랫동안 숲에서 사는 자였고... 용맹하게 정진하는 것을 찬탄하였음을 그들이 듣게 되면, 그들은 그대로 수행할 것이고, 이는 오랜 세월동안 그들에게 이익과 행복을 이끌어줄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선재, 선재라. 가섭이여. 그대는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가엾이 여기어, 하늘사람과 인간의 안녕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수행하고 있다.” 『상윳따 니까야』,II,16.

With the change of the curriculum at our Kangwon, this year we began to study the original teachings of Shakyamuni Buddha(근본 불교), as recorded in the Agamas (아함경) and Nikayas. One day, reading the Samyutta Nikaya, “The Connected Discourses of the Buddha”, I came across the above sutra, which I was deeply moved by.

강원의 교과 과정이 변하면서, 올해 우리는 아함경과 니까야에 수록된 석가모니불의 근본 가르침(근본 불교)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상윳따 니까야의 “The Connected Discourses of the Buddha”를 읽으면서, 나를 감동시킨 위의 경전을 만나게 되었다.

This sutra shows a conversation between the Buddha and Mahakassapa. Kassapa explains the way, and the motivations for which he practices (수행), after which the Buddha praises Kassapa’s lifestyle, and the compassionate motivation for which he undertakes it.

이 경전은 부처님과 마하가섭 사이의 대화를 보여준다. 가섭존자는 그가 수행했던 방식과 동기를 설명하고, 부처님은 그가 떠맡은 자비로운 동기와 삶의 방식을 찬탄하고 있다.

Kassapa, known as the Disciple of Buddha foremost in ascetic practices (두타제일), committed himself to an austere life of practice; living alone in the forest, only eating almsfood, wearing rag-ropes, and putting forth energy in practice. Even into his old age, Kassapa undertook these practices, as well as the other ascetic practices(12두타행). Though we might think that such a life would be too difficult, uninteresting, or even miserable, Kassapa tells us the exact opposite. With few wishes and always contented, he practices “for a pleasant dwelling in this very life”, practice which the Buddha praises as “for the welfare and happiness of the multitude, out of compassion for the world”.

부처님의 제자 중 두타제일로 알려진 가섭존자는 검소한 수행생활에 전념하였다. 그는 숲에서 홀로 살

있고, 오직 걸식으로만 연명했으며, 분소의를 입고, 수행에 온힘을 쏟았다. 심지어 그는 노년에도, 다른 두 타행들(12두타행)과 같이 이런 수행을 떠맡았다. 우리에게 이런 삶이 너무나 버겁고, 지루하고, 비참하겠지만, 가섭존자는 이와 완전히 반대로 우리에게 말한다. 소욕하고 항상 지족하며, “금생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수행하고, 부처님께서 찬탄하신대로, “세상을 가엾이 여기어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수행한다.

The practices Kassapa mentions in this Sutra, (forest dwelling, eating almsfood, wearing rag-robos), as well as the other 12 ascetic practices(12두타행), can be understood as all interconnected, as a whole life-style of practice. Renouncing sensual pleasures, content to possess only the essentials, Kassapa strove to put his full energy into the practice of the Eightfold Noble Path(팔정도).

이 경전에서 가섭존자가 언급하는 수행들(산림 거주, 걸식, 분소의)과 여타 12가지의 두타행들은, 온전한 수행의 방식으로서, 전체가 서로 연관 지어진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감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고, 오직 필수적인 소유물에 만족하며, 가섭존자는 자신의 모든 기력을 팔정도의 수행에 쏟으려고 노력하였다.

In the Buddha's age and ours, people normally desire many things, including nice clothes, delicious food, a large house, many possessions, and a comfortable life. Buddhists, however, realize that even by fulfilling all those desires, we rarely find contentment or peace of mind. Thus, the early disciples of Buddha, with only 3 robes and 1 bowl (三衣一鉢), put all of their energy into practice, which the Buddha called “the Four Foundations of Mindfulness”(4념처 수행); “A monk at the root of a forest tree...sits down cross-legged, holding his body erect, and establishes mindfulness before him.” (Digha Nikkaya, Samannaphala Sutta). The Buddha and his disciples, as well as great monks throughout history, all put forth great energy into sitting meditation in their everyday lives. The above Sutra shows not just Kassapa's practice, but the spirit in which the early disciples of Buddha practiced in daily life.

부처님의 시대나 우리 시대나, 사람들은 보통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 큰 집, 많은 소유물, 편안한 삶 등 많은 것을 바란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바램들을 모두 충족하여도, 만족이나 마음의 평화를 찾기 어려움을 불자들은 알고 있다. 그런 까닭에, 초기의 부처님의 제자들은 삼의일발(三衣一鉢)만 지닌 채, 부처님께서 사념처라 부르셨던 수행에 모든 사력을 다하였다. “나무 아래서 비구는...가부좌를 하고, 몸을 바로 세우며, 자신의 앞에 주의를 둔다.”(디가 니까야, 『사문유과경』) 부처님과 역사상 위대한 스님들이었던 부처님의 제자들은 모든 열정을 일상의 좌선수행에 바쳤다. 위의 경전은 단지 가섭존자의 수행뿐만 아니라, 매 일상 수행하였던 부처님의 초기 제자들의 정신을 보여준다.

Although in the present day, both monks and lay-people may not be able to live doing these same practices, we can live with this same spirit. Whether our practice is sitting meditation(좌선), sutra studies(간경) or chanting(염불), by putting all of our energy into that, and forgetting our selfishness and worldly concerns, we too will find “pleasant dwelling in this very life” – the highest happiness. Furthermore, living simply, practicing the 8-Fold Path, we also live with “compassion for later generations.” As Kassapa’s example showed, practicing diligently in daily life we simultaneously benefit both ourselves and all other beings(자리아타).



오늘날에 비록 스님들과 재가신도 모두 이와 똑같이 수행하기는 힘들겠지만, 이와 같은 정신은 지니고 살아갈 수 있다. 우리의 수행이 좌선이 되었든, 간경이 되었든, 염불이 되었든, 그것에 모든 기력을 다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이기주의와 세간사들을 잊는다면, 우리 역시도 가장 큰 행복인 “금생의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다. 거기에다, 단순하게 생활하고,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우리 역시도 가섭존자가 보여주신 대로 “후세의 사람들을 위한 자비”를 지니고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매 일상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자신과 다른 일체 중생을 동시에 이롭게 할 수 있다.

Reading this sutra, I reflected on my own practice, and felt at once ashamed of my behavior and inspired to walk the same path as Kassapa did. The enlightened disciples of the Buddha, all human beings just like you and me, renounced their desires and practiced in such a way. Why couldn’t we do the same?. Though we all have desires for material comforts and pleasures, those things have never once brought us contentment. Rather, it is in renouncing those same desires and practice as the Buddha and Kassapa did that we find true happiness. I believe that, if we turn in this direction, we will find deep meaning in our own lives and also live “for the welfare and happiness of the multitude, out of compassion for the world, for the good, welfare and happiness of devas and humans”.

이 경전을 읽고 내 수행을 반조하면서, 나는 즉시 내 태도에 부끄러움을 느꼈고, 가섭존자와 같은 길을 걷고 싶어졌다. 그저 당신이나 나와 같은 인간이었던,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욕망을 포기하고 것처럼 수행하였다. 어째서 우리는 그렇게 못할까? 비록 우리가 물질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향한 욕구를 모두 채우더라도, 그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주진 않는다. 대신에, 그와 같은 욕구들을 포기하고, 부처님과 가섭존자가 그랬던 것처럼 수행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방향을 돌리게 되면, 우리 삶의 깊은 의미를 찾게 될 것이고 또한, “많은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세상을 가엾이 여기어, 하늘사람과 인간의 안녕과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살 수도 있을 것이다. 定慧社

『밀라레빠』를 읽고

자운 | 사집

요즘 밀라레빠의 전기를 읽고 있다. 며칠 전에 도서관에 갔다가 눈에 띄어 집어든 것이 지금까지 시간나는대로 틈틈이 읽고 있는 중이다. 밀라레빠는 티베트의 뛰어난 수행승으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로 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고, 저 유명한 『밀라레빠의 십만송』을 지은 분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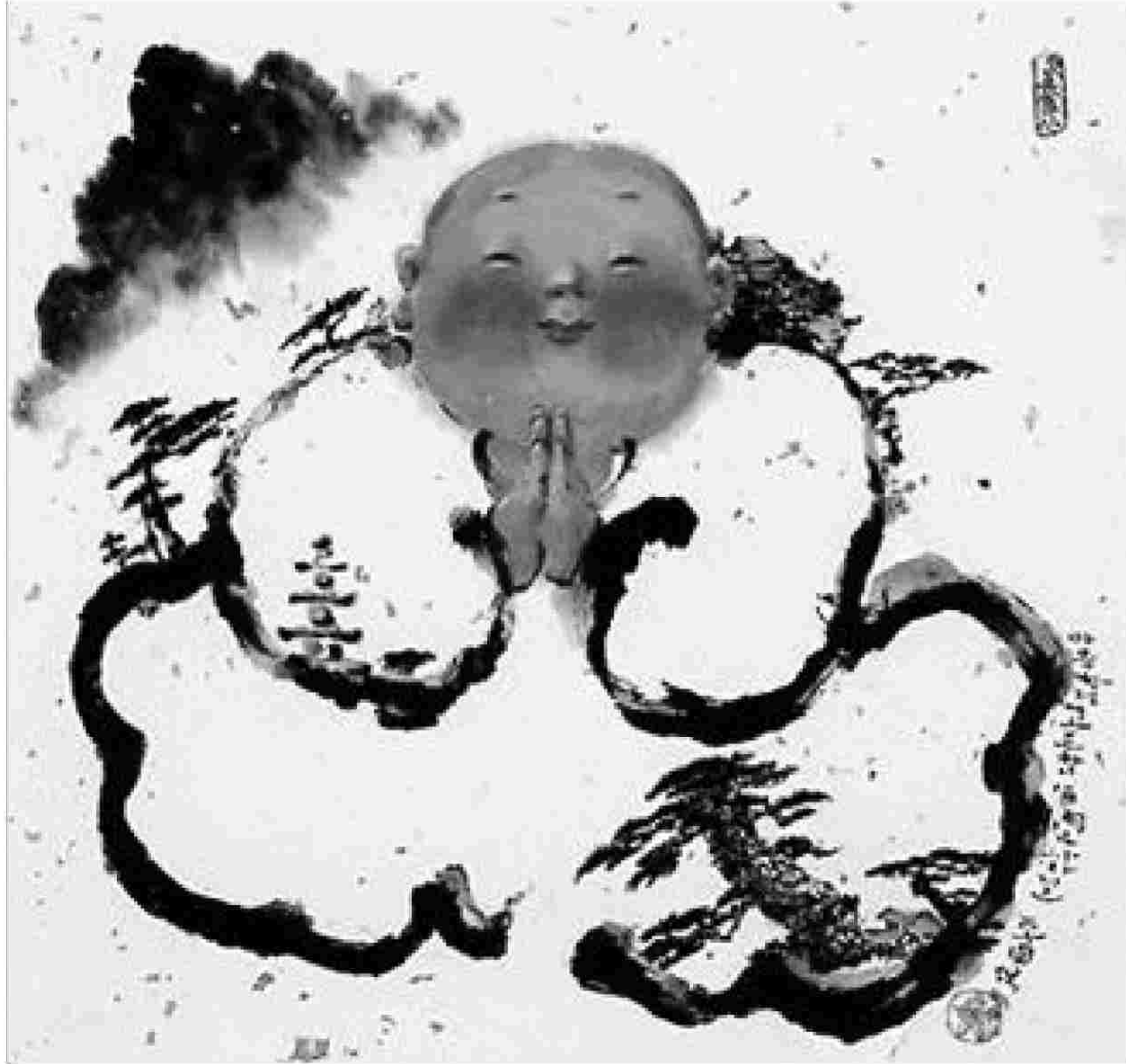
내가 밀라레빠의 생애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스승에 대한 믿음과 헌신이다. 밀라레빠는 스승 마르빠에게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스승의 분부대로 돌탑을 쌓아나간다. 갖은 고생을 하며 돌탑을 중간쯤 쌓았을 때 스승은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돌탑을 허물어서 돌들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도록 한다. 그리고 다시 쌓고 또 허물고 다시 쌓고 허물기를 반복하게 된다.

등창이 나면서까지 고생고생하며 쌓아올린 돌탑을 아무런 이유 없이 몇 번이나 허물고 다시 쌓으라고 했을 때, 보통사람이었다면 몇 번은 도망갔을 터이지만 밀라레빠는 스승이 자신을 진리로 이끌어 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과 인내로 스승에 대한 헌신을 계속해나간다.

책의 말미에 밀라레빠는 스승에 대한 믿음과 헌신 그리고 불굴의 정신력이 자신을 최고의 깨달음으로 인도해 준 원동력이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나의 경우라면 어땠을까? 나는 그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만큼 헌신하고 있는가? 定慧社



소년소녀가장에게 따뜻한 손길을



현재 소년소녀 가정 7가정, 다문화 가정 2가정을 돕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 ※ 후원 물품(반찬, 동화책, 장난감, 옷, 학용품 등)은 무엇이든 항상 기다립니다.
- ※ 계좌번호를 통합 운영합니다. 앞으로는 아래 계좌로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협 : 810-02-120594 [박채균]~~

~~우체국 : 503490-01-001097 [소년소녀(황소연)]~~



우체국 : 501676-01-002074 예금주 : [송광사(소년소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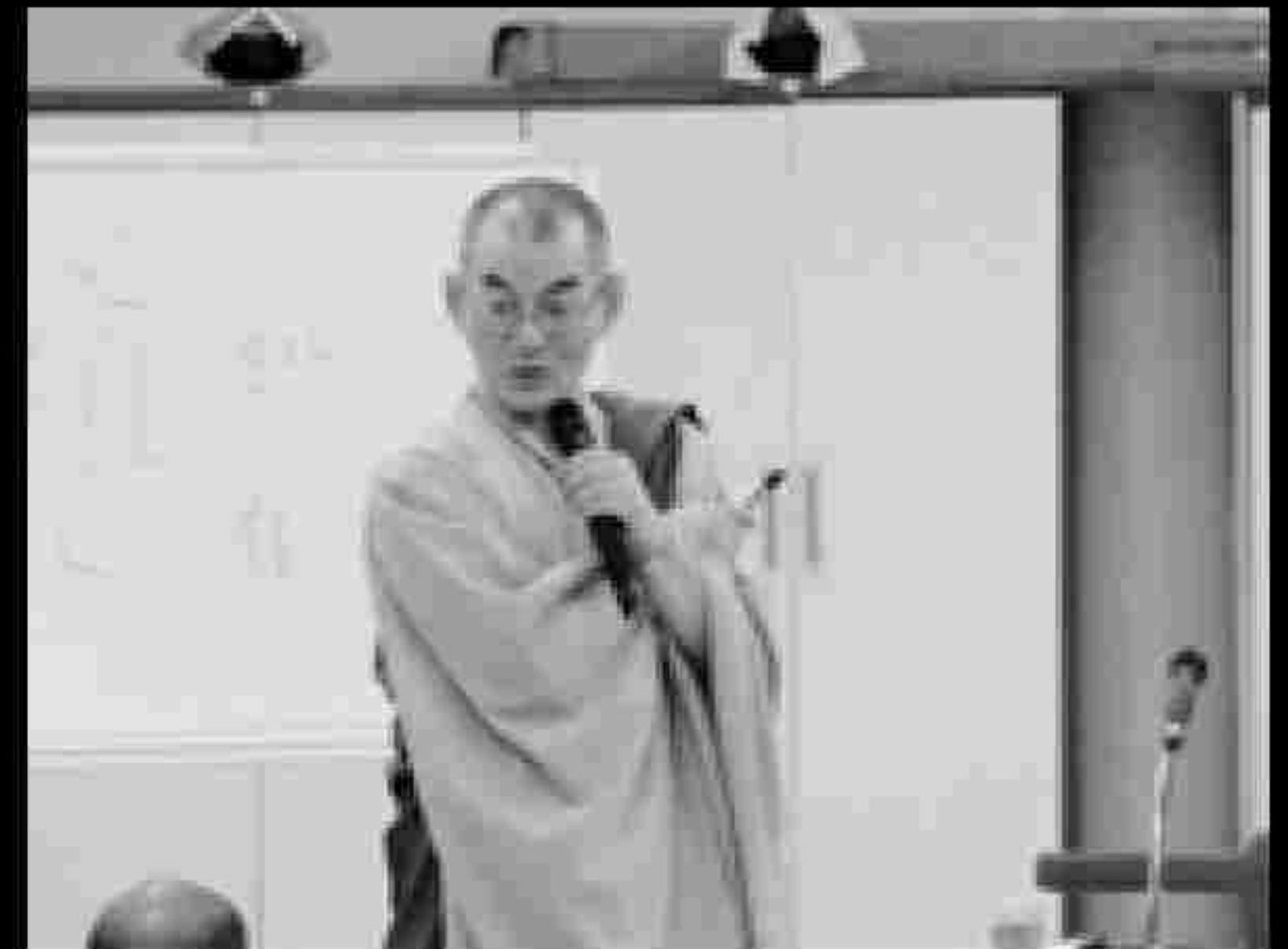
♥ 연락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번지 송광사 강원 소년소녀가장돕기 담당자 앞
E-mail : lhklove@hanmail.net ☎ 061)755-5302 명적스님
소임자 : 심법, 명적, 법경, 법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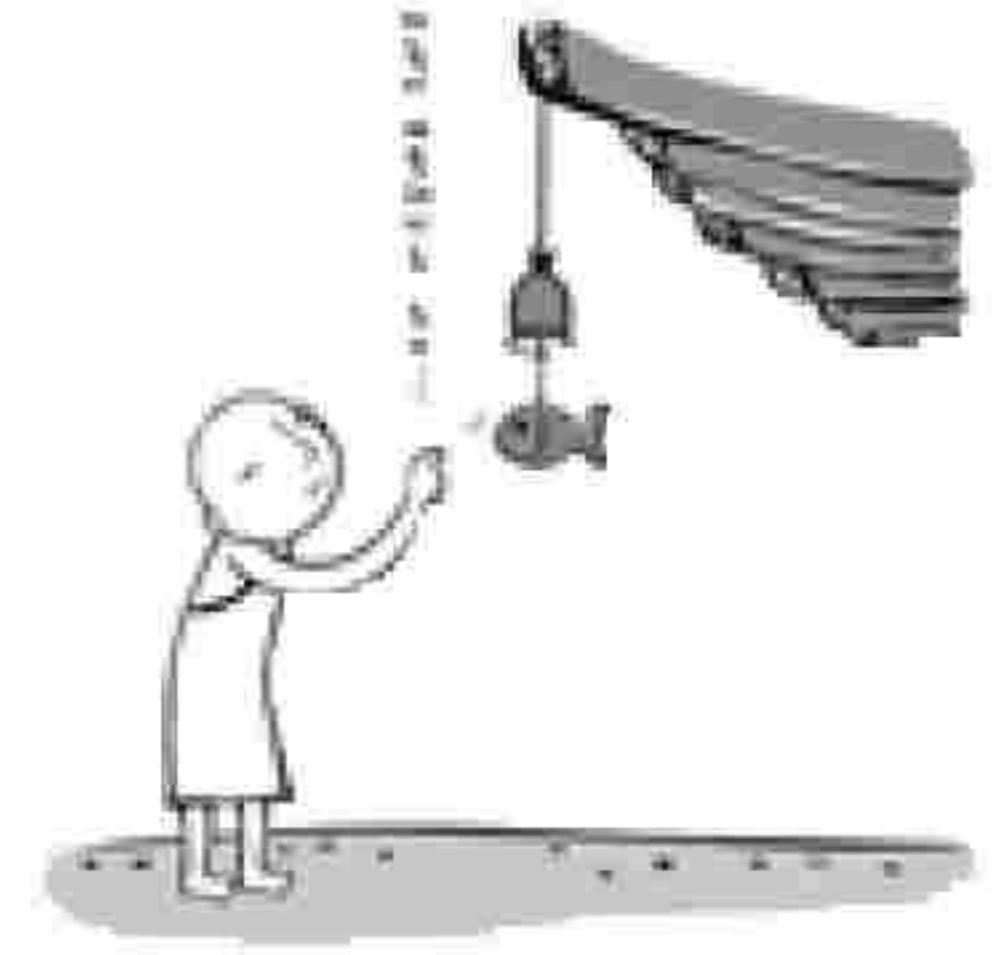
신묘년 강원 소식

편집실



- 3월 19일 동안거 방학을 마치고 강원 복귀하였습니다.
- 4월 6일 춘계 다례제 - 풍암영각
- 4월 7일 민족수호결기대회 - 사자루
- 4월 14일 봄산철 원족산행 - 순창 강천사
- 4월 28 ~ 29일 삼월불사, 제 801주기 보조국사 종재
 개금불사 회향
- 5월 16일 하안거 용상방 - 정혜사 큰방
- 5월 17일 범망경 포살, 방장스님 하안거 결제 법어
- 6월 9일 일각대선사 추모제
- 6월 30일 범망경 포살, 방장스님 반결제 법문
- 7월 7일 반결제 원족산행 - 장흥 보림사
- 7월 12일 믿음과 기도 특강 - 원통스님
- 7월 28일 취봉대선사 추모제
- 8월 7 ~ 14일 백중 7일 지장 기도 봉행 - 지장전
- 8월 14일 하안거 해제 포살과 방장스님 법어 - 대웅전





- 9월 28일 효봉대선사 추모재
- 9월 30일 신축 박물관 기공식
- 10월 5일 추계 다례제 - 풍암영각
- 10월 7일 가을산철 원족산행 - 김제 금산사
- 10월 14일 ~ 12월 2일 금강산림법회 봉행 - 사자루
- 11월 9일 동안거 용상방 - 정혜사 큰방
- 11월 10일 범망경 포살, 방장스님 결제법어 - 사자루
- 11월 15일 겨울철 소방훈련 실시 - 대웅보전 앞마당
- 11월 17일 무 뽑기 운력이 있었습니다.
- 11월 27일 ~ 12월 11일 도량 곳곳에서 낙엽운력이 있었습니다.
- 12월 7일 구산대선사 추모재
- 12월 21일 동지 팔죽 새알 운력 - 정혜사 큰방
- 12월 22일 반결제 원족산행 - 조계산 등산
- 12월 24일 범망경 포살, 방장스님 반결제 법문
- 12월 25 ~ 31일 성도재일기간 용맹정진 - 정혜사 큰방
- 1월 30일 ~ 2월 6일 동안거 해제 7일 지장 기도 봉행 - 지장전



강원 후원내역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보시 하셨습니다

오경스님, 무각사, 중심사, 강주스님, 원각사 주지스님, 방장스님, 관음선행 장학회, 봉은사, 교무스님, 운주사, 길상사, 원통스님, 부산 관음사, 진경스님, 원각사, 원추리 후원회, 관음사, 금강원 삼안스님, 박정란, 김유진, 김윤미, 김선희, 순천송원회, 김은영, 봉은사 신도회 님

대중공양 동참하셨습니다

동효스님, 강주스님, 진화스님, 덕조스님, 황매암, 현문스님, 제승훈, 대원사 주지스님, 일각스님 문도회, 혜정스님 반연, 진경스님, 홍룡사, 학림사 오등선원, 유나스님, 해청스님, 만경사, 도갑스님, 울주스님, 금묵스님 반연, 향응스님, 심법스님, 일각스님, 진웅스님, 경본스님, 한지훈, 약사암, 여여선원 효산스님, 현진스님, 여일스님, 설우스님, 선덕스님, 운주사, 구산스님 문도회

「정혜사」誌 후원 감사합니다

김선아, 김창환, 손아영, 이해모, 가원, 정선순, 이홍영 님



구독안내

주소 변경이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우)540-93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강원 「정혜사」 편집실

전화 (061)755-5302

편집후기

● 힘든 환경 속에서 편집하느라 고생 많이 한 편집위원 스님들에게 먼저 감사드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더 좋은 소식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진년 좋은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편집 경험이 없는 이들이 만들어서 2% 부족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 망각하고 싶은 일도, 간직하고 싶은 일도, 시간이 지나면 모두 가물거릴 터입니다. 희비와 명암이 교차했던 지난 한 해의 기억들을 여기에 대신 남겨둡니다.

신묘년 송광사 결제 대중



하안거 결제대중



동안거 결제대중

庵日佛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넘치는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 법정스님 <산에는 꽃이 피네> 중에서 -